

# 국제농업소식

2008 / 1

주요 통상쟁점  
세계농업 흐름 분석  
해외농업현장 방문기  
특별 기고  
해외농업·통상 기사



농림부  
국제농업국

## < 목 차 >

### 【 주요 통상 쟁점 】

- ▶ DDA 협상이 중요한 3가지 이유 ..... 1
- ▶ 1월 DDA 농업협상 주요국 심층회의 논의 결과 ..... 4

### 【 세계농업 흐름 분석 】

- ▶ 인도 농업현황과 교역 현황 ..... 6
- ▶ 복제동물 유래 식품 승인 및 안전성 관련 EU동향 ..... 19
- ▶ 변화를 모색하는 OECD ..... 22

### 【 해외 농업현장 방문 후기 】

- ▶ 한국농업의 우크라이나 진출을 위한 탐색 ..... 28
- ▶ 연해주 고려인 농업정책 지원사업과 연해주 농업 ..... 43
- ▶ 해외농업 현황 및 환경조사에 대한 제언 - 중앙아시아 ..... 54

### 【 특별 기고 】

- ▶ 함께 꾸는 농식품 수출의 꿈 ..... 64
- ▶ 캘리포니아 시금치 이야기 ..... 67
- ▶ 다보스 포럼이란? ..... 70

### 【 해외농업·통상 기사 요약 】

- ▶ 미국 농업부 경제연구소(ERS), 농촌관광 연구보고서 발간 ..... 80

## DDA 농업협상이 중요한 3가지 이유

하영효 국제농업국장

### 관심 끌지 못하는 DDA 협상

정부의 FTA 로드맵에 따라 작년 4월에 타결된 한미 FTA를 비롯하여 현재 한-EU, 한-캐나다 등 FTA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2001년 말에 출범한 다자간 협상인 도하라운드(DDA)협상도 그간 여러 차례의 협상결렬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작년 7월에 크로포드 팰커너(Crawford Falconer) 농업협상 의장이 제시한 세부원칙 초안을 바탕으로 지난 9월 이후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현재는 회원국간 상당히 입장차이가 좁혀져 있는 상태이다.

한미 FTA, 그리고 진행중인 한-EU FTA 등 FTA협상에 비하여 DDA협상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된 이면에는 FTA는 원칙적으로 관세철폐라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구하여 충격이 직접적으로 느껴지고 대개 2개국 협상을 하므로 단기간에 협상결과가 도출되나, DDA는 관세감축을 목표로 하므로 FTA에 비해 개방폭이 낮고 151개 회원국이 협상을 하므로 단기간에 협상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여 2001년 협상이 시작된 이래로 부침을 거듭하면서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자리하고 있다.

### DDA 협상에도 관심두어야

과연, FTA가 확산되고 있다고 해서 DDA협상은 무시해도 좋을 만한 것일까? 그러나 그렇게 안이하게만 볼 것은 아니다.

첫째, DDA협상에는 FTA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국내보조 분야를 중요하게 다룬다. 국내보조금 감축의 효과는 FTA를 체결하는 양국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3국에게도 미친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이 FTA를 하면서 국내보조금을 5년 안에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합의하면 미국과 수출에 있어 경쟁관계가 있는 브라질 등 제3국이 그 직접적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국내보조금은 FTA에서는 다루지 않고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하는 DDA협상 등 다자차원에서 다룬다. 따라서 현재 DDA협상에서 논의중인 보조금 감축 폭 등 국내보조에 관한 세부 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둘째, FTA협상에서 양허제외나 예외적 취급대상이 된 품목들은 DDA협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FTA는 협상을 하는 두 국가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외적 취급의 범위 등 양허내용을 조절할 수 있으나, DDA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원칙(Modality)에 회원국들이 맞추어야 하는 시스템이므로 각 회원국의 특수한 민감성이 반영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FTA에서 예외적취급으로 처리한 품목들이 대부분 민감품목이라는 점에서 DDA협상 결과는 민감품목의 전반적인 개방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FTA협상의 광범위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다자체제에 대한 선호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FTA는 각 FTA별 양허내용이나 개방폭이 달라 국제무역체제를 복잡하게 할 수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DDA가 체결되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단일 무역규범 하에 놓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상태에서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UR협상도 거의 8년간의 긴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러한 점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타결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회원국의 수가 늘어나고 개도국의 목소리가 더 커진 지금의 DDA협상은 더 어렵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협상이 쉽게 타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포기하리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 **DDA협상 최선 다할 때**

최근 라미 WTO 사무총장과 팰코너 농업협상 의장은 올 4월 이전 DDA협상의 세부원칙 타결에 온힘을 쏟고 있으며 협상의 주축이 되는 미국과

EU, 인도, 브라질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현재 민감품목의 저율관세 물량(TRQ) 계산방식, 개도국 특별품목의 숫자와 대우등 기술적인 세부사항들을 중심으로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실무협상이 끝나는 대로 각료급 협상에서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와의 개방폭을 조율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FTA와 DDA협상. 어느 한곳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협상 담당자로서는 매협상 단계마다 전체적인 협상의 틀을 지켜 나가면서도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

## 1월 DDA 농업협상 주요국 심층회의 논의 결과

농림부 농업협상과 사무관 최봉순

DDA 농업협상이 1월 3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요국 심층회의(Room E)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팔코너 농업협상그룹의장은 협상 진전을 위하여 2007년 12월 국내보조 분야, 2008년 1월 4일 시장접근 분야 작업문서(working paper)를 배포하였고 작업문서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보조, 시장접근 등 DDA 농업협상 협상의제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특히 그간 회원국간 의견대립이 지속되었던 관세상한, 민감품목 및 개도국 특별품목 등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교환이 있었다.

논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세상한 도입과 관련하여 수출국들은 지속적으로 관세상한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의장 작업문서에 관세상한에 대한 명문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입국들은 DDA 협상에서 고관세 품목의 경우 관세를 많이 감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세상한 도입은 지나친 부담이 되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민감품목 관련,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민감품목 개수 확대를 주장하였으며 세번별 소비량을 기준으로 TRQ<sup>1)</sup>를 증량 할 것을 주장하였다. 수출국들은 민감품목 개수 확대에 반대하였으며 세번별 소비량을 기준으로 TRQ를 증량하는 경우 수입량이 적어 TRQ 증량이 작아지는 경우 최소 증량 수준을 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개도국 특별품목 관련, 우리나라를 비롯한 G33 국가들은 의장 문서에 제시된 특별품목의 평균 관세감축률(12%~20%)이 너무 높으며 관세감축 면제 특별품목 개수(0.6%~2.5%)가 너무 작다고 강한 불만을 표명하였다. 의장은 의견대립이 계속되자 개도국의 경우 평균 관세감축률이 36% 또는

1) 민감품목은 일반품목에 비해 관세감축을 적게 하는 대신 저율관세 수입물량(TRQ)을 증량하여야 한다.

40% 이상일 경우 감축률을 낮출 수 있는 신축성이 있으므로 일부 품목의 감축률을 조정하여 개도국특별품목의 평균 감축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대다수 회원국들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세부원칙 수정안이 1월말 경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회의가 세부원칙 수정안 제시 전 마지막 다자협약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EU의 경우 4월전 농업협상 세부원칙 타결을 목표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었다.

향후 협상일정과 관련, 세부원칙 수정안이 1월말 경 제시된 후 세부원칙 수정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한 다자협약(주요국 심층회의)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자협약을 통하여 회원국간 의견이 조율되면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고위급 회의, 각료급 회의 등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인도 농업현황과 농산물 교역동향

주벨기에대사관겸유럽연합대표부 농무관 조재호

### 1. 서론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중 하나이고 현재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토면적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나라이며 11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UN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증가속도를 감안하면 2025년에는 중국을 따라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 측면에서도 인도는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 국가이지만 늘어나는 인구 때문에 대표적인 농산물 소비 국가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농산물 교역량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인도 농업의 규모를 감안하면 인도의 농산물교역에 작은 변화만 있더라도 세계 시장에서는 큰 충격을 줄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인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 1990년대이후 농산물교역에서 지속적으로 약간의 순수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농업 및 교역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개별 품목별로 보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인도가 미래에 세계시장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수입국이면서 수출국으로서의 위치를 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 인도의 농업구조와 농업정책

## 가. 경제 구조 및 농업구조

인도는 GDP를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인도경제는 2003년 이후 8%이상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5 - 2006년 GDP는 9%이상 성장하였다. 세계적으로 인도의 경제성장율은 중국에게만 뒤지며 2015년까지 7%수준의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경제 성장 덕분에 인도의 빈곤은 많이 완화되었으나 1인당 GDP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2006년 820 달러) 세계은행에서 여전히 저소득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도 인구의 1/3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 계층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에서 곡물은 하루 소비되는 칼로리의 절반이상을 공급해 주는 주식이며 콩은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다. 최근 소득이 늘어나고 세계화되면서 곡물 소비가 약간 줄어들고 콩, 식용기름, 과일, 채소, 우유, 육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식용기름의 경우 수입 자유화로 가격이 떨어져 소비가 더욱 늘고 있다. 그러나 영양공급원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1인당 일일 섭취 칼로리를 기준으로 인도는 여전히 브라질, 중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

**Table 1: Food consumption – daily calories per capi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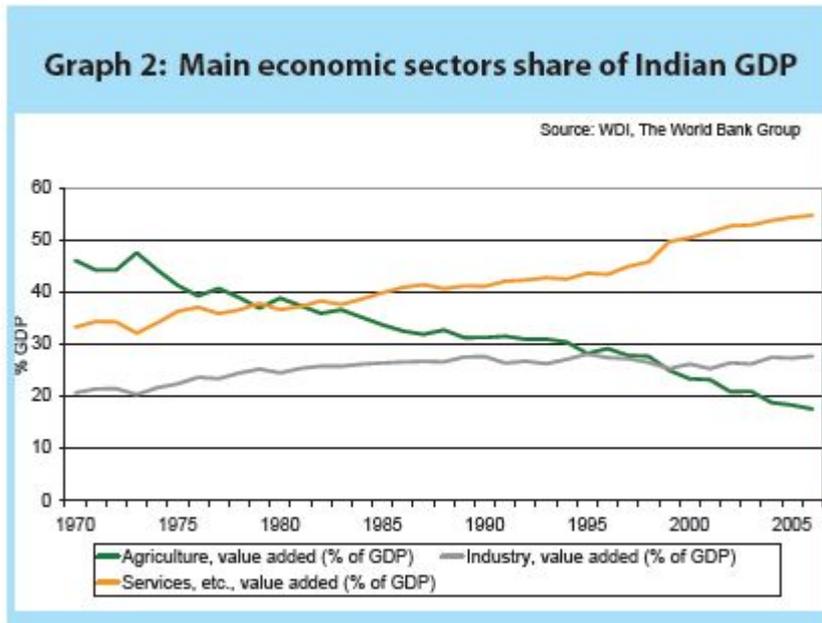
	1990-1992	1998-2000	2003-2005
Brazil	2860	3001	3223
China	2696	2917	2957
India	2396	2463	2512

Source: FAOSTAT

농업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90년대 초반에는 농업이 GDP의 30%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2006년에는 17.5%미만으로 떨어졌다. 이 수치는 중국의 12%, 브라질의 5%보다는 높다.

이 기간동안 2차산업의 비중은 큰 변동이 없었으며 2006년 28%를 기록하였다. 한편 서비스 부문은 급격히 성장하였는데 2006년 GDP의 55%를 기록하였으며 2000-2005년 GDP 성장의 65%를 서비스 부문에서 기여하였다.

인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70%가 넘는 인구는 여전히 농촌지역에 살고 있으며 농업은 노동인구의 60%가 종사하는 주요 업종이다. 이 수치는 중국의 44%(2002년), 브라질의 21%(2004년)과 비교된다. 노동시장에서 농업비중 감소는 경제전반에서의 농업비중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직성은 노동력 이동 수준이 낮고 농업부문의 생산성이 낮는데 기인한다. 인도에서 노동 인력당 농업 부가가치는 1990년-2004년간 실질적으로 15% 성장하였으나 중국에서는 생산성이 60%, 브라질에서는 두 배가 넘게 증가하였다.



인도의 곡물 재배면적은 2003-2005년 170백만 ha로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다. OECD의 2007 농업정책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농업이 대부분 소규모의 자기소유농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90년대 후반 농가의 평균 경작면적은 약 1.4ha 였으며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농장이 상속되는 과정에서 분할되기 때문이다. 116백만 농민중 약 60%가 1 ha 미만의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17%를 경작하고 있다. 4ha 이상의 중규모, 대규모 농가의 비중은 전체 농가의 7%를 약간 상회하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체 면적의 약 40%를 경작한다. 이는 소농의 대부분이 낮은 투자 및 생산성 증가를 보이고 있는 생계농가(subsistence

holdings)임을 의미한다.

인도는 쌀, 밀, 물소 우유(buffalo milk), 우유, 사탕수수에서 세계적인 생산국중 하나이다. 인도가 생산하는 주요 농산물 10개 품목중 8개는 세계 1-2위 생산품목이며 몇 개 품목은 교역이 활발한 품목이다. 아래 표는 2003-2005년 생산액을 기준으로 본 주요품목 생산현황자료인데 쌀이 1위에 올라있고 물소 우유와 밀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인도는 물소 우유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며 쌀, 밀, 우유, 사탕수수 등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한다. 그러나 인도는 세계 최대 소비국가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인도는 이들 품목을 수출하고 있기는 하나 수출량은 생산량과 수요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또한, 인도는 물소 우유, 피망, 바나나, 망고 등 인도 음식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일부 전문 품목에 있어서 최대 생산국이다.

**Table 2: Top 10 sectors of India & world rank**

Commodity	Rank India	World Rank 2005	Production Avg 2003-2005	
			Billion \$	Million T
Paddy rice	1	2	27.5	129.2
Buffalo milk	2	1	25.2	50.5
Wheat	3	2	10.9	69.7
Cow milk	4	2	10.0	37.5
Fresh vegetables	5	2	6.6	34.9
Sugar cane	6	2	5.2	250.0
Potatoes	7	3	3.6	25.0
Groundnuts	8	2	3.4	7.1
Pimento	9	1	3.3	1.1
Buffalo meat	10	9	3.1	1.5

Source: FAOSTAT, world rank calculated by DG AGRI

한편 인도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 가는 바이오 작물 생산국으로 중국을

앞서가고 있다. 2006년의 경우 230만 농민이 380만ha의 땅에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였다. 주요 유전자변형작물은 2003년 도입된 Bt 면화이다.

## 나. 농업정책

인도의 농업정책은 주로 식량분배를 통한 기아 경감과 식량자급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업 인프라 투자와 함께 정부는 주요 곡물에 대한 최소지지가격, 투입재 보조,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농업정책수단을 통해 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급격한 식량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며 국민에게 배분할 적절한 식량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지지가격은 매년 주요 곡물에 대해서 최소지지가격을 정하고 있다. IFPRI(국제식량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과거에는 보장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게 유지되어 왔다. 동시에 비료, 전기, 농업용수 등 농업투입재에 대한 보조는 투입재에 대한 비효율적 사용과 농가에 대한 간접보조 효과를 가져왔다. IFPRI는 이러한 농업지원이 세계 시장가격에 대한 경기상쇄효과(counter cyclical)를 가져왔다고 결론을 내렸다. 2007년 OECD 농업정책점검 보고서에서는 인도의 농업지지(납세자, 소비자로부터 이전된) 수준은 OECD 평균을 약간 밑돌고 있지만 OECD에서 점검한 다른 신흥국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사용된 농업지지 수단은 극히 비효율적이고 가장 무역을 왜곡하는 형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 3. 농산물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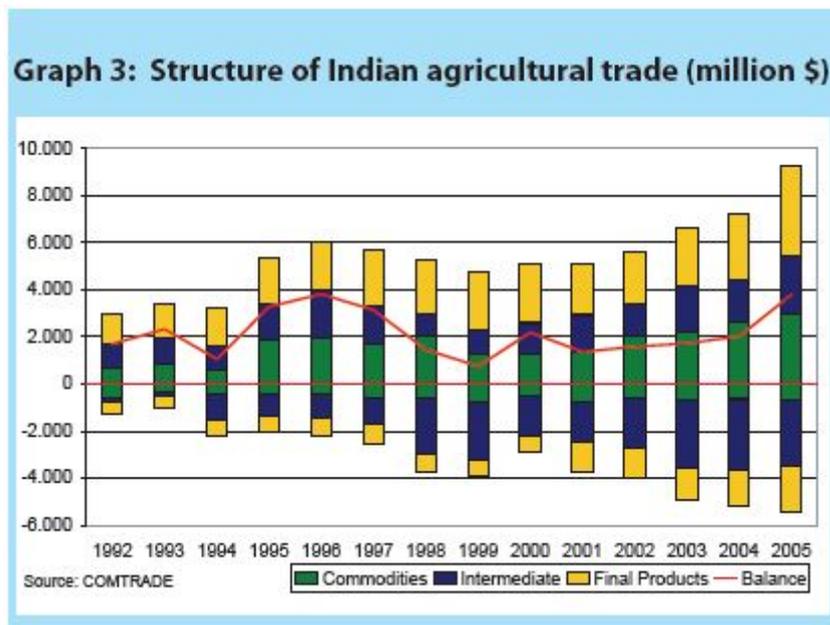
1990년대 초 시작된 개혁으로 인도의 교역량은 엄청나게 증가하였으나 중국, 인도와 달리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EU는 인도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로서 2005년의 경우 전체 인도 교역량의 21%를 차지하여 미국, 중국을 앞서고 있다. EU에게 인도는 10번째 교역상대국(전체 교역량의 1.8%)이며 2005년 20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는 DDA 협상에서 G20 그룹의 리더 국가중 하나이며 2005년부터 Mercosur와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1월부터 발효된 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SAFTA)의 일원으로서

인도, 부탄,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몰디브와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EU, ASEAN, 한국 등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 관련 교역은 전체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은 전체 수출의 9%, 수입은 전체 수입의 5% 수준이다. 다른 세계 주요국가와 비교해 볼 때 인도의 국가 규모를 감안하면 농산물 교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인도 독립이래 농업정책의 주요 목표가 식량자급이었기 때문에 농산물 교역은 상대적으로 제약되어 왔다. 그러나 기술개발과 거시경제정책 개혁은 교역 자유화를 촉진시켰고 농산물 교역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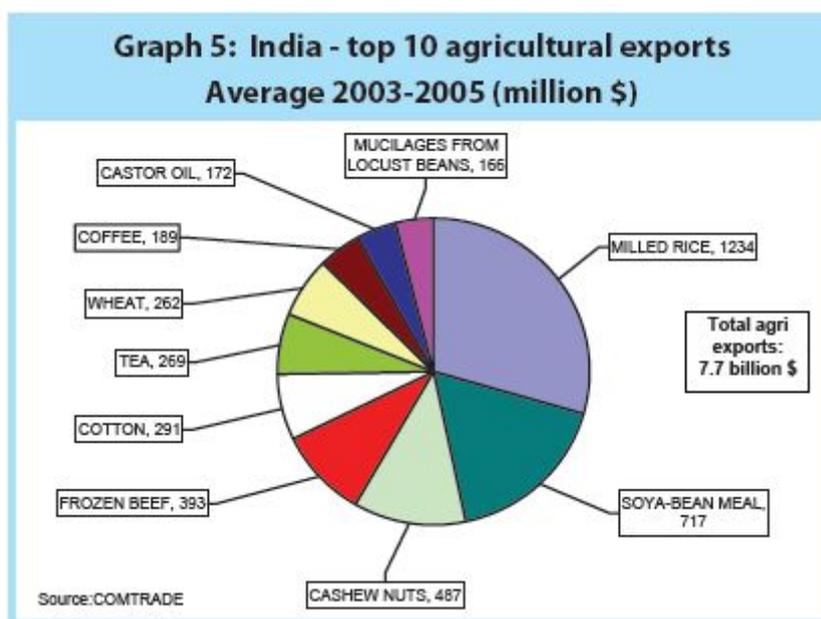
인도의 농산물 수출은 2005년 93억불이며 수입은 55억불 수준이다. 따라서 인도는 40억불 수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농식품 순수출국이다. 지난 십년간 농산물 수출은 두배 늘었고 수입은 거의 세배가 증가하였다. 90년대에는 심한 진폭이 있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는 수출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도의 주요 수출상대국은 다양하다. EU는 2003-2005년 전체 수출액의 16%를 차지하는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이지만 십년전 21%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다. ASEAN은 14%로 두 번째 시장이나 이 또한 비중이 줄고 있다. 한편 중국, 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와 교역은 급격히 늘고 있다 미국시장은 10%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우디도 비슷하다. 이러한 교역의 흐름은 인도가 현재 EU, ASEAN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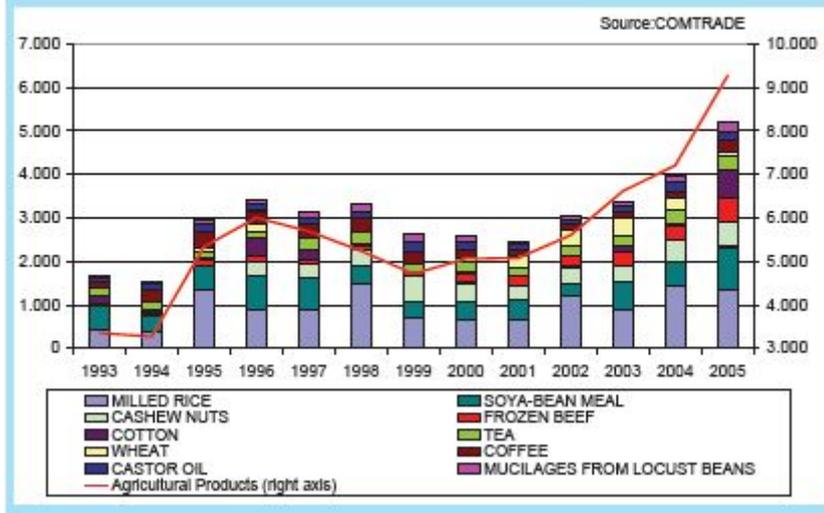
주요 농산물 수출품목 구성을 살펴보면 기초 농산물이 전체 수출의 1/3을 점유하며 중간 가공품이 1/4, 최종 제품이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10년간 가장 수출이 크게 늘어난 품목은 기초 농산물로서 134%가 늘어났다. 최대 수출품목은 쌀로서 전체 농산물 수출의 16%를 차지한다.



중간가공품인 콩가루는 전체 수출액의 9%를 차지하여 두 번째로 중요한 수출품목이다. 면화와 밀, cashew nuts, 물소고기, 커피, 차 등이 10대 수출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90년대에는 수출액에 상당한 진폭이 있었는데 이는 쌀 수출가격과 물량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쌀 수출물량은 인도 국내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진폭에도 불구하고 1999년 이후 인도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물소고기, 콩가루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

Graph 6: India - top 10 agricultural exports (milli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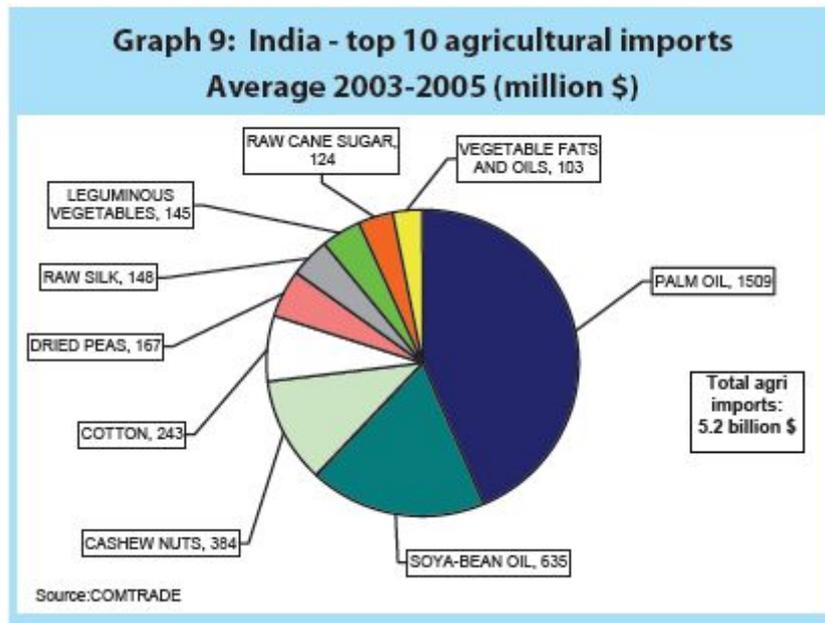


인도의 경우 주요 수출품목은 몇몇 수출대상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쌀 수출시장이며 물소 고기, cashew nuts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EU 또한 쌀, cashew nuts의 주요 수출시장이다. 이중 cashew nuts는 주로 선진국이 주요 수출시장이다. 면화는 중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주요 인근 국가로 수출이 집중되어 있고 콩가루와 물소 고기도 중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ASEAN이 주요 시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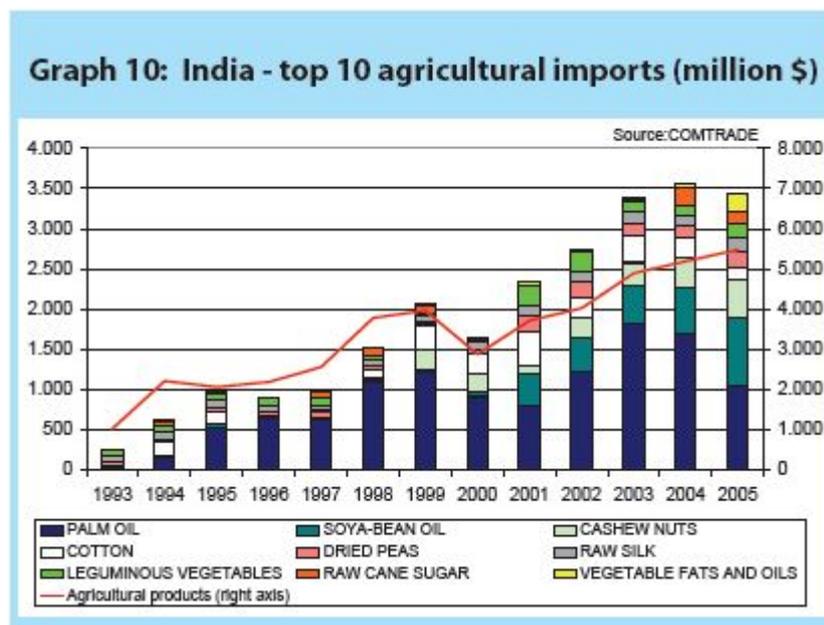
인도의 농산물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ASEAN 국가들이 2003-2005년 수입의 40%를 점유하여 가장 큰 농산물 공급국가로 자리를 잡고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각각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EU는 전체 시장의 4%를 점유하여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비슷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Mercosur 국가나 ASEAN 국가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입시장 점유율 (합쳐서 17%)이다. 지난 10년동안 ASEAN과 아르헨티나는 급격히 시장 점유율을 늘린 반면 미국, EU, 브라질, 중국의 점유율은 줄어들었다.

인도의 농산물 수입은 주로 중간가공품에 집중(전체 수입의 56%)되어 있다. 최종 가공식품은 31%, 기초 농산물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은 인도에서 식물성기름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팜오일(Palm oil)은 전체 수입중 29%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품목이다. 콩기름을 합하면 전체 수입의 40%를 차지한다. 단백질 콩도 주요 수입품목중 하나이다. 이들 품목은 인구 증가에 의해 수입이 촉진되고 있다. cashew nuts와 면화는 인도의 수출품목이면서 주요 수입품목중 하나인데 주로 가공품 원료나 직물산업

원료로 사용된다.



아래 그림은 주요 수입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특히 식물성 기름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지난 10년간 식물성기름의 수입은 콩기름 등 식물성 지방의 시장비중이 늘어나면서 8배가 증가하였다.



인도가 수입하는 팜오일의 72%는 인도네시아에서, 27%는 말레이시아에서

공급된다. 한편 콩기름의 72%는 아르헨티나, 24%는 브라질에서 공급된다.

#### 4. EU와 인도의 농산물 교역 현황

EU는 인도와 농식품교역에서 약 10억유로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EU가 인도로 수출하는 농산물 수출액은 250백만 유로 (2004-2006년 평균)이며 EU 전체 수출에서 인도시장은 0.5%를 차지한다. 한편 EU는 13억유로의 농산물을 인도에서 수입하며 EU 농식품 수입에서 2%가 인도산이다(12위). EU의 인도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밀이 40백만 유로(대 인도 농산물 수출의 16%)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스카치 위스키가 32 백만유로 (13%)로 2위를 기록하였다. 인도 섬유산업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원모와 원피 수출은 각각 18백만 유로, 14 백만유로를 기록하였으며 마른 콩은 11억유로를 기록하였다. 기타 채소종자(6백만유로), 포도주(4백만 유로), 올리브 오일 등이 수출되고 있다.

<b>Product</b>	<b>Avg. Bound (%)</b>	<b>Avg. Applied (%)</b>
Animal products	105.0	33.0
Dairy	65.0	35.0
Fruit, vegetables	100.9	31.5
Coffee, tea	133.1	56.3
Cereals	119.4	37.3
Fats and oils	168.9	52.5
Sugars	124.7	48.4
Beverages	127.5	68.9
Cotton	110.0	17.0

Source: WTO

인도의 평균 WTO 농산물 양허관세율은 117.2%이나 현행 평균실행관세율은 40.8%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행관세는 국내 수급상황에 따라 빈번히 조정된다. 예를 들어 2006년 밀의 작황이 좋지않아

수입밀이 필요하자 밀 관세를 인하하여 EU는 관세없이 밀을 인도에 수출한 바 있다. 반면 낙농품은 높은 관세로 인해 수출이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최종 농가공식품에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경사(tariff escalation)가 심한데 EU의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인 포도주, 위스키의 경우 100-1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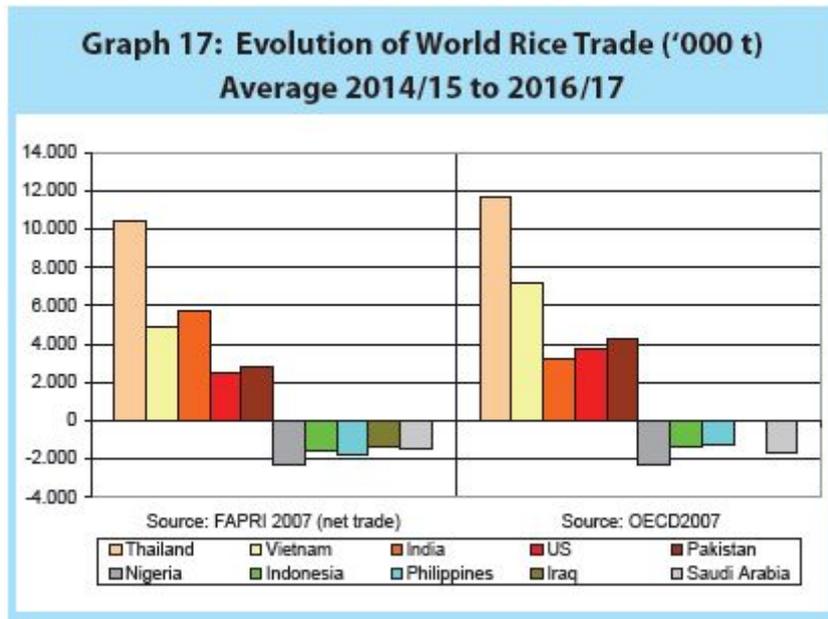
인도에서 EU로 수입되는 농산물은 2004-2006년 평균 13억유로를 기록하였는데 cashew nuts, 커피, 쌀, castor oil이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에서 수입되는 97%의 농산물이 무관세 또는 30% 미만의 저관세로 들어오고 있다.

## 5. 인도의 농업 및 교역 전망

OECD와 FAPRI는 모두 인도가 미래에 세계시장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는 국내 수급사정에 따라 수출물량이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쌀 수출국으로서 입장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인도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쌀 생산국이자 태국,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 쌀 순수출국이다. FAPRI는 인도의 쌀 생산면적 및 단위당 생산량이 늘어나는 반면 1인당 소비량은 줄어들어 세계 쌀 시장 점유율이 16%에서 2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탕의 경우에는 인도가 순 수입국에서 순 수출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견실한 생산증가와 소비증가세 둔화로 향후 10년내에 4%에서 6%를 증가할 것이다. 콩가루의 경우 인도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6% 수준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물소고기 수출은 생산이 수요보다 더 빨리 증가하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낙농품의 경우 버터와 탈지분유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버터의 경우 생산이 크게 증가하지만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출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나 탈지분유의 경우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4%에서 6%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수입측면을 보면 인도는 2006/2007년 밀 순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향후 10년동안 많은 양의 순 수출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식물성기름의 경우 인도는 세계 대두유 수입의 1/4, 팜오일의



14%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수입국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식물성 기름 소비는 90년대 중반이후 생산 속도를 앞지렀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최근 식물성 기름의 가격상승을 감안하면 향후 10년내에 식물성 기름 수입액은 두배 증가할 것이다.

## 6. 결론

인도 농업은 GDP에서의 기여도 뿐만 아니라 많은 인구가 아직도 생계를 농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정책결정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와 부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국내생산이 항상 수요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만큼 인도 경제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농업부문이 그 잠재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녹색혁명은 기초 식량곡물생산을 증가시켰으며 농업부문에 기술혁신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진척은 인도의 교역상황을 보면 명확해 진다. 한때 인도는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수입에 의존했으나 1990년 이후 농산물 순 수출국이 되었다. 인도의 농업은 거대하고 다양하며 단순히 그 규모만으로도 인도의 농산물 교역에 있어 작은 변화가 세계 농산물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는 여전히 미지수이며 여전히 빨리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가 현재의 농업구조와 농업정책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인도의 서비스 경제가 성장하면서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다. 이점이 인도의 미래 교역 및 농업정책에서 인도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

## 복제동물 유래 식품 승인 및 안전성 관련 EU동향

주벨기에대사관겸유럽연합대표부 농무관 조재호

EU 집행위 보건총국은 2008. 1.14. 신개발식품(Novel Food)규정 개정안 제안시 동 승인이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승인절차를 개선하고 복제나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식품까지 신규식품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 발표하였으며, EFSA(유럽식품안전청)은 2008. 1.11.복제 동물로부터 유래한 식품이 전통적인 식품과 비교하여 안전성에 차이가 없다는 예비 검토의견을 발표하는 등 복제동물에서 유래한 식품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한 바, 주요 발표내용과 전망은 다음과 같다.

- \* Novel Food 란 1997.5.이전까지 EU 지역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소비되지 않았던 식품 또는 식품성분을 의미함
- \* 유럽에서 동물복제는 상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복제동물을 이용한 식품에 대한 승인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음

### 1. 신개발식품 승인 절차 개정안

EU 집행위는 기존의 신개발식품규정(EC regulation 258/97)을 개정안에서 복제 및 나노기술을 이용한 식품까지 신개발식품 규정 대상에 포함시키되 다른 EU 규정(EC regulation 1829/03) 등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는 GMO, 식품첨가제 등은 규율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신개발식품에 대한 승인절차를 집행위 중심으로 일원화하였다. 앞으로 신개발식품은 집행위에서 직접 승인신청을 받고 유럽식품안전청에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성이 판명되면 EU 집행위가 식품및동물위생 상임위원회에 신규식품 승인을 제안하며 가중 다수결로 결정하게 된다 .

만약 식품및동물위생상임위원회에서 가중 다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개월 내에 각료이사회에서 동 과정이 반복되며 여기서도 가중다수결로

찬반이 결정되지 않으면 최종 승인권한은 집행위가 갖게 된다. (GMO 승인절차와 동일)

집행위는 적절한 경우 유럽과학신기술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신개발식품에 대한 추가 라벨링, 사용조건, 시장판매 모니터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기존에는 신개발식품은 우선 신청자가 판매대상 회원국에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신청을 받은 회원국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EU 집행위에 통보하며 EU 집행위는 과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각료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EU에서 전통적으로 판매되지는 않았으나 제3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되어온 식품에 대해서는 과거의 안전성기록을 제출하면 인정해 주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 **2. 복제동물 유래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유럽식품안전청 예비검토의견 (draft opinion)**

유럽식품안전청 과학위원회는 “복제동물로부터 유래한 식품과 전통적 방식으로 키워진 동물에서 유래한 식품간에 안전성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very unlikely)”는 검토의견을 발표하였다.

유럽식품안전청은 동 검토의견에 대해 2008.2.25.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2008.5월 최종 검토의견을 낼 예정이며, 동물복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조사도 금년내 이루어질 예정이다.

## **3. 향후 전망**

비록 유럽식품안전청에서 복제동물의 안전성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견을 발표하고 집행위에서 복제동물에서 유래한 식품의 유통승인절차를 제안하였으나 실제로 유럽내에서 복제동물성 식품이 유통되기까지는 GMO와 마찬가지로 많은 장애요인이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럽시민들이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남아있고 많은 환경단체가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EU 집행위 제안대로 복제동물 식품이 GMO와 같은 승인절차를 갖게 되면 현재 GMO와 같이 승인절차가 느려지고 궁극적으로 회원국가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집행위에 최종 승인권한을 넘겨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럽내에서 복제동물 식품의 유통 허용에는 매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허용되더라도 매우 제한적으로 유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

## 변화를 모색하는 OECD

주OECD대표부 농무관 윤동진

OECD 대표부에 온 지 6개월이 지났다.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OECD를 정리해 볼 시점이라고 본다. 전체라고 하면 한편으로 현 시점에서 OECD 전반에 흐르는 기조를 확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계열 차원에서 농업분야가 거처온 흐름을 짚어보는 것을 의미한다. 워낙 평가가 많은 시절이다 보니 지난해 11월쯤 국제전화를 받았다. 전화친절도 조사가 틀림없었다. 대학 리포트에 쓸 건데 OECD에 가입해 어떤 이점이 있는지 묻고 있었다. 아주 친절히 설명<sup>2)</sup>해 주고 보니 참 좋은 질문이 아닌가 싶다. 본부에 있으면서 나 자신이 도대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뭐 하는 곳인지 다소 회의적 시선을 던지곤 했기 때문이다.

선진국 클럽, 그동안 OECD에 주어진 수식어였다. 그런데 요즘은 OECD 스스로 그 한계를 벗어나려 애쓰고 있다. 2차 대전 후 유럽경제 재건을 위해 발족(1961년)한 OECD- 마샬플랜을 계기로 유럽 16개국이 1948년에 유럽경제협력기구, OEEC를 만들었고 여기에 미국과 캐나다 등이 참여해 20개국으로 출발<sup>3)</sup>는 그동안 선진국간 경제협력과 정책협의를 하는 Think tank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최근 DDA 협상에서 볼 수 있듯 국제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 글로벌 이슈가 복잡·다극화되었고 OECD도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말, 회원국을 확대하는 동시에 영향력 있는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긴밀히 하자는 중장기 로드맵에 합의하였다. 확대 대상국(Accession countries 5개국)은 러시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칠레이고 관계 강화대상국(Enhanced engagement countries 5개국)은 브라질, 인도, 중국,

2) OECD를 통해 선진국과 상호 정책경험을 교류하고 익힘으로써 우리의 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글로벌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 만약, 우리가 아직까지 OECD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그 의의를 다시 새겨볼 수 있을 것임.

3) 일본 1964년, 핀란드 1969년, 호주 1971년, 뉴질랜드 1973년, 1994년 이후 6개국(멕시코, 체코, 폴란드, 한국, 슬로바키아) 추가가입으로 현재 30개 회원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향후 의사 결정구조나 작업방식 등에 많은 변화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현재 30개 회원국을 유럽 국가와 비유럽 국가, 그리고 후자를 다시 영미권(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 그렇지 않은 국가로 나누면, 한국, 일본, 멕시코, 터키 정도가 남게 된다. 구조적으로 OECD가 유럽의 목소리를 중앙에 담아내고 상당부분 서구의 시각에서 일 해온 배경이라 볼 수 있다.

### 지구적 사안을, 공공부문 중심으로

최근 우리 대표부 직원회의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결과적으로 OECD회의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키워드는 기후변화(climate change), 개발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에너지, 혁신(innovation), 거버넌스 등 언론에서 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OECD의 특징이자 장점은 지구적 사안을 회원국 정부 정책전문가들이 주도해 다룬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앞으로 OECD에 선진국 클럽이라는 수식어 보다는 공공부문 또는 정부 부문의 정책연구센터 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계 각국에 유명한 연구소들이 많고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존재하지만, 공무원이 주 고객인 동시에 논의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정책적 고민을 다루는 싱크탱크로는 OECD가 대표적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OECD 통계를 비롯한 각종 분석 결과물을 우리가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또 하나 장점은 수평적 이슈에 대한 접근이다. 통계에 따르면 OECD에는 약 200여개의 위원회<sup>4)</sup>, 작업반, 전문가 그룹 등이 있으며 매년 각 회원국 본부에서 약 4 만명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중 회의체 어느 한곳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길게 걸쳐 있는 것이 수평적 이슈이다. 예컨대, 물, 기후변화, 정부개혁, 개발이슈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수평적 이슈를 찾아내고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접근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반면, 유엔과 차별성이 적게 된다는 의견도 있다.

결론적으로 OECD는 정부 정책을 다루는-비교고찰하고 비평하고

4) Committee라는 명칭을 가진 OECD 공식 위원회는 26개임

건의하는- 연구 기관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글로벌 이슈에 관해 타 국제연구기관과 어떻게 차별해 나갈 것인지를 묵하 고민 중에 있는 것이다.

## 농식품분야 현황과 도전

그러면, 농식품 분야는 어떠한가. 우선, 사무국 조직의 변화를 살필 필요가 있다. 지난 2006년 OECD 사무총장은 기존 식품농수산물(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과 무역국을 무역 농업국(TAD)으로 통합하였다. 농업 위원회 중심으로 반대의견도 많았지만 예산 절감과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OECD와 WTO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런 결과라는 견해도 있다. 다시 말하면 OECD 농업부문이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사실 1980년대 이후 주요국의 농정개혁과 다자간 시장개방 협상은 OECD와 WTO의 공조 속에 진행되었다. 세세한 부분의 토론과 쟁점 등은 여전하지만 큰 흐름이 그랬다는 의미이다. 즉, OECD가 운을 띄우면 WTO가 이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UR 농산물 협상은 미국과 EU의 농업보조금 분쟁이 직접 원인이었던 것처럼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 또한 블루박스로 대표되는 양대 축의 합의(compromise)가 전체 협상타결의 중요한 분기점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목격하고 있듯 UR을 잇는 DDA농업협상은 그 맥락과 구조가 사뭇 달라졌다. 아직도 주요국 중심의 사전 정지작업이 일반적이지만, 참여 세력이 늘고 이해관계가 다기화되면서 더욱 복잡해 진 것이다.

한편, UR이후 10여 년의 이행기간을 지내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책을 개혁하고 효율화하려는 시도는 일상화되었다. EU의 공동농업정책(CAP)개혁, 미국의 Farm Bill,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농정개혁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OECD 농업위원회를 둘러싼 환경은 변화했다. 예전만큼 WTO협상과 긴밀히 영향을 주고 받을 위치에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농정개혁의 감시자로 OECD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않다. 오히려,

OECD가 매년 발표하는 농업생산지지지 추정치(PSE)의 경우, 지표자체의 유용성을 떠나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논리적 모순과 함께 반복적 주입으로 상징성이 줄어들었다.

어느 조직이나 새로운 이슈와 영역을 개척하지 못하면 뒤떨어지게 된다. 각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 정책 담당자(Policy maker)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을 긁어주어야 주의를 끌고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물론 OECD와 WTO협상과의 연계성은 아직 유효하며 국익차원에서 보면 중요한 요소가 분명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OECD 농업분야는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이해대립과 긴장이 너무 지배적인 느낌이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정책 싱크탱크로 OECD를 자리매김하고자 할 때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약해진 협상의 연계고리를 다시 세우기보다 국가별 농업정책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는 가운데 분야별 정책 비교연구를 통해 잘한 정책을 서로 배우고 정책 비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모으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OECD의 분석가들은 회원국 농정당국의 정책적 고민을 경험적 사례와 이론적 분석을 통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추출하되, 정책의 도입과 실천부분은 책임을 감당하는 회원국 정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올해 초 농업 위원회 전문패널<sup>5)</sup>의 건의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패널보고서는 OECD가 예전처럼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을 비판하기보다 성공 정책사례를 확산시켜나간다는 자세로 임해 줄 것과 현행 2년 단위 예산 및 업무계획(PWB)<sup>6)</sup>과 병행하여 5년 단위 중기 전략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회원국 본부와의 연계, 작업의 모멘텀 유지, OECD내의 visibility 제고 등을 위해 최소 5년에 한번은 농업 각료회의<sup>7)</sup>를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대내농업 및 식품정책, 농식품무역정책, 농식품기술혁신, 농업과

5) 동 패널은 EU, 미국, 일본의 전직 고위관료 3인(프란츠 휘츨러 전 농업담당 집행위원, J.Penn 전 차관, Azuma 전 차관)이 작성하였고 농업정책과 식품정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OECD 농업 위원회가 취해야 할 작업우선순위와 접근방식을 권고하고 있음

6) 2003년부터 OECD의 Program of Work and Budget은 복년제 예산시스템을 따르고 있음

7) 농업각료회의는 '87년과 '92년, '98년에 열렸음. '92년 회의는 UR타결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으나 '87년 각료 회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있어 '87년과 구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환경, 에너지와 바이오매스, 기후변화, 농촌정책 등 주요 분야별 우선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 농업위원회에서 얼마나 채택이 될 지는 회원국에 달려 있겠으나 농업각료회의 조기개최 문제는 이미 지난해 11월 제149차 농업위원회에서 다수 회원국의 공감대를 얻은 바 있다.

따라서, 올해 농업분야 OECD논의는 현행 2007-2008년 예산 및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sup>8)</sup>을 중심으로 다루겠지만 그 이면에는 차기 각료회의 성과물을 어떻게 준비하고 담아낼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 OECD 활용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가 참석한 OECD 회의는 2006년 한해에만 506회<sup>9)</sup>이다. OECD 대표부에서 홀로 커버한 회의가 많지만 열 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본부에서 날아온 대표단 인원만도 연간 800명이 넘는다. 참석범위는 사안에 따라 장관급 각료에서부터 실무 공무원, 관련 연구원, 대학교수 등 매우 다양하다. 아쉬운 점은 OECD회의가 OECD담당자가 준비해 참석하고 전문 보고함으로써 자체 마무리되는 회의로 간주되는 현실이다.

OECD대표부에 와서 보니, 타 부처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우리보다 참석자의 폭이 훨씬 넓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부 부처는 국장급, 과장급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도 제법 있었고 환경, 정보통신, 조세분야 같은 경우는 매년 장관급 회의를 열고 있었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 고위급 참석→ 관심도 제고→ 관련 예산확보→ 고위급 참석- 분명치는 않다. 그러나, 농업정책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국제안목을 키우는 논의의 장에 담당 정책부서의 참여가 미진한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 출장, 언어문제 등 제약요인이 많다면 구조적으로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야 한다.

예컨대, 정책부서와 OECD업무의 연계성을 키우는 조직재편을 강구할 수도 있겠고, 연간 OECD 출장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도 도움이 된다.

8) 최근 OECD논의는 2-3년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며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농정개혁 종합보고서, 비관세교역 조치, 농촌경제에서 농가와 농식품산업의 역할, risk management 위험관리기법, 구제역 발생시 예상되는 시나리오, DDA협상관련 평가와 분석, 바이오에너지, 농산업과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등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9) OECD는 인터넷에 기반한 자료망을 잘 구축해 놓고 있다. 올리스넷(OLISnet; on-line information service)로 약칭되며 회의문서 일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회의계획 및 실적, 국가별 참석자 명단 까지 확인할 수 있음.

OECD는 이미 올해 일년간 회의 일정과 주요 의제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정책 부서의 회의 참석과 선진 사례조사를 연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연구기관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규 정책 연구용역 발주시 관련 OECD 선행 연구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앞으로 5년, 10년 후 농업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지, 떠오르는 새로운 이슈들은 어떤 것인지, 늘상 우리에게 닥친 현안들이 시급하긴 하지만 선제적 예방적 농정을 누군가는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OECD는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아닐까 한다. /

## 해외 농업현장 방문후기

### 한국농업의 우크라이나 진출을 위한 탐색

성진근  
(사)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  
충북대 명예교수

#### 11월 17일 맑음, 약간 쌀쌀

드디어 Ukraine Kiev로 떠나는 날이다. Aeroflot 인천 발 12시 40분, 모스크바 착 16시 25분, 서울과 모스크바 간 시차가 6시간이니까 9시간 정도의 비행이다. 모스크바에서 21시 50분에 출발하여 Kiev에는 22시 30분에 도착하는데 1시간의 시차가 있으니까 1시간 40분 비행이다.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공항에서 Kiev출발까지 5시간가량 빈둥거려야 한다.(도착 16:25:출발 21:50) Kiev공항에는 신모세 우크라이나 대사관 행정원이 나오기로 되어있다.

Black soil지역의 농토를 인수하여 한국농민의 해외진출을 도모하며 방랑하고 있는 고려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일이 막 시작되려고 한다.

#### 시베리아 상공에서

갈대숲인지, 자작나무 숲인지 회갈색으로 가득 찬 시베리아 평원, 몇 시간 날아도 인적하나 없는 별판에는 끝없는 지평선에 오렌지색 노을이 번지면서 시베리아 별판에 밤이 오고 있다.

시베리아라는 자원을 보유한 러시아는 그야말로 축복받은 나라라고 할만하다. 자연상태 그대로 보존된 드넓은 평원과 삼림자원, 그리고 무엇이 얼마나 부존되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지하자원, 지구상의 마지막 자원보고(寶庫)를 지니고 있다는 배경 하나만으로도 둔하고 어리석은 북극곰·러시아인의 여유와 배짱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 우크라이나란 나라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동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러시아, 북쪽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서쪽으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올도바, 남쪽으로 흑해와 아조프해에 연해있다.

우크라이나의 국토면적은 603,700km<sup>2</sup>로서 한반도의 약 2.7배이고 프랑스보다 약간 넓다.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토지는 소위 흑토라고 불리는 기름진 땅이며, 서쪽에 있는 카르파티아산맥 지대와 크림반도 동남쪽을 제외하고는 산이 거의 없는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전 국토의 81%가 경작 가능지역이며, 이 중 60%가 비옥한 흑토지대이다. 국토의 56%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30%는 도시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14%는 야산 및 목초지이다.

유럽의 곡창지대로서 천혜의 흑토지대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는 평온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축복받은 땅이기도 했지만, 끊임없는 외세의 침탈대상이 되어왔다. 1919년 탄생한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은 러시아와 벨로루스, 자카프카즈와 함께 “소련”이라 불리우는 소비에트 연방을 형성했다.

1986년 페레스트로이카와 소련의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는 급속도로 러시아와 소비에트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0년대까지 집권했던 쿠츠마 대통령의 성향이 친러쪽에 강했던 것에 반해, 새롭게 대통령으로 당선된 유셴코가 러시아가 아닌 친유럽과 미국을 표방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우크라이나인의 탈 소비에트화 경향 때문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둔 유럽연합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본주의로 돌아선 러시아와 함께 새로운 경제연합을 구성할 것인가를 두고 두 갈래의 기로에 서있다.

드디어 UKRAINE 수도 Kiev공항에 내려서 30여분 달린 뒤 Kiev의 Slavutich hotel에 도착했다. 현지시간 11시 30분. 인천출발로부터 계산하여 30시간만이다. (시차 7시간 포함)

## **11월 18일 Kiev 첫날**

눈을 뜨니 5시다. 그러니까 5시간동안 정신없이 잤다. 조사여행계획을 다시 세워야겠다. 대사관에서 준비한 자료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크림반도(크림자치공화국) 잔코이군과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고프 지역(벨로루시와 러시아로부터 각각30km)이다.

잔코이를 조사한 뒤 북으로 이동하면서 헤르손과 니콜라예프를 본 뒤 오데사로 이동하여 항공로로 키예프로 이동하고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귀국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다.

호텔 Coffee shop에서 알렉산드로 추마코프란 자를 만났다. 2m에 육박하는 큰 키에 눈썹과 눈썹이 붙은 그야말로 일자눈썹, 3AT KOTC란 Computer telecommunication system의 vice president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의 동생뻘이란다(처남).

#### 크림반도 - 나이팅게일과 알타회담의 곳

나이팅게일, 알타회담, 소련의 흑해함대,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휴양지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다. 바로 크림 반도이다. 이곳 인구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이지만 그들 다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크림 타타르인들이다. 현재 약 27만명의 (전체 인구의 10%) 크림 타타르인들이 크림 반도에 살고 있는데 대부분이 무슬림들이다.

면적 2만 5,600km<sup>2</sup>(네덜란드 국토면적의 62%)의 크림반도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크림반도는 흑해를 통해 터키, 루마니아, 불가리아, 러시아, 그리스, 그루지아 등으로 나가는 몇 개 안되는 부동항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동서양의 문화와 종교가 만나는 장소였고,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다. 또한, 기원전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형성되기도 하였고, 로마제국의 속국이 되기도 하였다.

제정 러시아시대에는 러시아의 남하정책의 기지로 활용되어 이를 둘러싼 많은 전쟁이 있던 곳인데 19C 중반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 터어키 사이에 일어난 크림전쟁이 대표적이다.(이 전쟁에서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활동하였다)

원래 러시아의 영토였던 크림 반도는 1954년 흐루시초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합병 300주년을 기념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양도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되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한 뒤 러시아의 흑해함

대가 있는 크림반도를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결과 현재 크림반도는 명목상 양국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자치주가 되었다.

크림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대책을 연합국지도자(루스벨트 미국대통령, 처칠영국수상, 스탈린 소련최고인민위원 등)들이 합의한 얄타회담장소로도 유명하다.

#### 체르니곱(고로드랴)지역에 관한 면담내용

위치 : 키예프 북쪽 200km떨어진 곳으로 러시아 및 프러시아와 30km거리의 국경무역지대이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음.

#### 주요인수대상

돈사 9,000㎡, 대지는 10ha이며 마을 내에 소재함  
돈사 8,000㎡, 대지는 11ha이며 마을외곽에 위치  
러시아 국경으로부터 10km내에 소재함

전체 경제면적은 70,000ha이며 35,000ha를 현재 경작 중  
그러므로 현재 인수가 가능한 토지면적은 35,000ha이고 대부분 토지 사유화증권(일명 “파이”)에 의해 각 농민들에게 분배되어 있음  
농지는 사유화가 되지 않아 아직 집단적소유 하에 일정한 지분증서가 있음  
개별농지지분의 측량 도면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토지인수방법

경작중인 토지는 인수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정부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유희농지의 국가 환수가 가능한 법률 때문으로 파악됨. 따라서 법률적, 심리적으로 지방정부가 농민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이 있으므로 원활한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임.

토지는 10년, 25년, 최장49년 임대이고 임대료는 1ha당 25\$내외이고 외지인에게는 연간 60\$선

Kiev시내 농산물시장조사를 오후에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실포 Grocery market, 지미스키와 블라디미르 채래시장이다.

모든 농산물은 kg당 중량을 기준으로 판매되고 있었는데, 땅값(지대)과 인건비가 저렴한 농업국가에 걸맞지 않게 농산물가격(소매가격)이 조악한 품질 수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비견될 정도로 너무 비쌌다. (단위는 그리브나; 1\$=5R이다.)

쌀(크림산) 4~5, 해바라기유 9/ℓ, 쇠고기 18~35, 돼지고기 30~37, 닭고기 19~26, 감 14, 석류 6, 감자 2, 당근 4, 마늘 8, 양파 3, 양배추 2, 배추 3, 파프리카 15~20, 가지 17, 오이 10~25, 토마토 24, 사과 6~10, 배 9~10, 소세지 23~31, 햄 49~75, 치즈 40~50, 시금치 30, 쪽파 20, 상추 35, 양상추 20, 풋고추 50(우리농산물과의 가격비교표를 뒷면에 별첨한다.)

농산물, 특히 신선농산물 값이 비싼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농산물 도매시장이 없다. 모든 소비자는 다차(도시민의 주말농장)나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소형트럭으로 구입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Margin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둘째, 겨울철이 들면서 생산이 줄어서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는 수입된다.

셋째, 신선도 유지에 필요한 저온, 저장시설이 없어서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폐기처분하는 농산물의 비중이 높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기능을 수행해주는 도매시장 기능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농들의 거래교섭력은 극히 위축되어 수집상의 횡포에 당할 수밖에 없다. 주로 채소농사를 짓는 고려인의 빈곤문제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저녁시간 대사관에서 제공해준 차편을 이용하여 만찬장소인 중국집(龍王大飯店)으로 이동하였다. 허승철대사는 고려대 러시아과 교수로 우크라이나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해와 현지고려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前向的인 자세가 돋보였다. 이미 KOICA자금 3백만불로 농촌지도센터와 농업기술교류센터를 크림반도 잔코이지역에서 건설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진출 전략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위로는 대통령과 총리로부터 아래는 지자체 정부의 담당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도 걸러서는 안되는 전방위 교섭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나라 전체 보다는 개인에게 돌아오는 이해관계를 소중히 생각하는, 그리고 체제전환과정의 공직자의 몸사리기, 총리와 대통령이 속한 정파적 관심의 차(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되고난 후 아직까지 내각구성이 안된 무정부 상태라고 한다.), 또한 자원부존조건이 좋은 나라 특유의 나태함과 가난한 후진국 특유의 의존적인 자세…… 등이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는」 이상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진출농업분야는 이 쪽에서 Biodiesel분야를 거론하지만 고용창출기회를 고려할 때 고려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은 아니다 라는 점에 합의했다. 땅 임대는 큰 면적보다는 중심되는 지역에 10,000ha정도의 규모에서 출발하자는데도 합의했다. 고려인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채소 분야 등 노동집약적인 종목과 축산 분야 진출이 바람직하다는 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유통Infra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을 기약하기 어렵다는데도 합의했다.

더 많은 정보를 종합하고 현지여건을 둘러본 뒤 결론을 내리자는 데도 합의했다. 내가 제시한 여행일정을 현지여건에 맞게 조정한 뒤 내일 통보받기로 약속한 후 만찬을 끝냈다. 며칠 전에 내린 눈으로 육로이동이 불편하고 현지 안내인과 관료들을 만날 약속 등 사전준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 적어둘게 있다. 체르니곶지역은 체르빌원전사고지역과 가까운 곳이란 구 참사의 제보에 따라 대상지역에서 빼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했다. 따라서 당초의 日程변경은 불가피하다.

## **11월 19일 Kiev 둘째날**

오전 11:00 국립 우크라이나 Agricultural University

면담자 : 부총장 Maksym Melnychuk(Innovation 담당) 외 교수 2명,

통역 Kang Den Sick(Kiev national university Linguistic Professor), Koo Jae han 참사(Counsellor)

대사관의 주선에 따라 국립 우크라이나 농업대학을 방문하여 부총장 등 보직교수 3인과 총장 접견실에서 2시간동안 회담.

국립농과대학은 교직원 10,000명, 학생 30,000명 합계 40,000명 수준의 구CIS최대의 농과대학이다. 부총장은 현 총장의 아들로 대학의 규모를 은근히 자랑하면서 Bio-energy분야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요청내용은 소형기계정유시설 개발에 대한 한국 측의 경제적 지원이었다.(한국이 붐으로 보이는가 보다)

나는 우리나라가 Palm油 수입을 검토하고 있고 폐식용유를 정제하여 사용하는 등 원료 확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Oil seed재배하여 개발수입하는 일은 상호 win-win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Bio diesel용 기계·장치산업은 우리도 경험이 日淺하므로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의 방문목적과 협력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Kiev 농산물 소매시장의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농업강국인 우크라이나는 자원부존조건은 훌륭하지만 이를 잘 活用할 수 있는 경영system이 부족하여 크게 실망하였다는 점부터 강조하였다.

우크라이나 생산농산물은 왜 시장에서 低級品취급을 받는가? 흑토지대 토질을 자만한 나머지 地力약탈적 농법만 시행되고 있을 뿐 같은 흑토지역인 미국 Iowa주와 같이 Corn-hog recycling system은 왜 정착되고 있지 않는가? 사료곡물은 창고에서 썩고 있는데 왜 축산물은 인근국(주로 폴란드)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가?

우크라이나 대학의 앞선 기초기술과 한국의 앞선 응용기술이 합쳐지면 기름진 우크라이나 토지에서 유럽고소득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길만이 양국이 win-win할 수 있는 길이라는 설명과 함께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생리활성화 물질 시험급이 실험을 통한 자연순환농업과 농축산물유통혁신을 위한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도매시장)건설을 위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Financing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방적인 도움을 요청하였다. 나는 “서울에서 kiev까지 30시간 걸려서 날아와서 우크라이나 농업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일방적으로 베풀어줄 동기가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받아쳤다. 무조건 해주면 받아주겠다는 태도는 도대체 무슨 심보일까? 서로가 win-win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는 선에서 회의는 끝났다.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중국 등 나라에서 경제협력을 제안하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다는 점과 우리의 협조가 우크라이나 전체발전에 아무리 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개인에게 구체적인 도움(실익)이 돌아올 것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또 다른 이유라고 점심식사 시간에 구재한 대사관참사가 설명하였다.

오후에는(3시) 구참사와 함께 우크라이나 농업정책부(Ministry of Agricultural Policy)를 방문하여 작물부문책임국장과 대외협력 담당관을 면담하였다.

그들의 농업부문의 개황에 대한 설명과 협조요청부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크라이나 농지는 3,200만ha 이며, 이 중에서 2,600만 ha가 경작되고 있다. 곡물재배면적은 1,500만ha이고 보리는 재배면적이 줄고 있는 대신에 콩, 유채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채는 최근 2년간 3~4배 증가했는데 겨울유채는 2006년의 40만ha에서 금년은 140만ha로 크게 증가하였다. 생산성은 1.5ton/ha내외로 작고 주로 독일로 수출된다.(500\$/ton)

농기계가 노후화되어있고 不足하여 적기 식재, 수확기를 놓쳐서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 결국 자본부족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외국자본투자를 환영하며 가공·유통부문의 합작도 원한다. 농업기술협력도 필요하다.

특히 농지 私有化를 위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서 시행령 등이 마련되면 명년부터라도 농지의 私有化가 가능해질 전망이고 현재의 국유화상태에서는 농지임대료가 농지가격의 1%수준에서 결정되는데 대략 100\$/1ha 수준이라고 알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농산물 Marketing system이 낙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자는 거래교섭력이 없어서 낮은 가격을 받는 반면에 소비자는 비싼 값으로 살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묻자,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유통은 민간부문이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는 Marketing Failure 때문에 정부개입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에 체제전환국가들은 이 분야를 가장 먼저 시장에 방임하고 있는 것이다. 기막힌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의 농민들이 이곳에 투자하면 결국 우리의 비교우위 부문인 신선 농산물 분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유통부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정가격에 의한 지속적인 販路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농업투자는 생산 못지않게 유통부문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투자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地代수준이 100US\$/ha라는 점도 문제다. 아무리 농업자원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가능할까? 예컨대, 콩 농사의 경우 ha당 2ton이 생산되고 톤당 250\$를 받는다고 할 때 농업조수입은 500\$/ha인데, 이 중에서 地代가 100\$/ha가 나간다면 농사지을 사람이 있을는지 의문이다.

현지의 사정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관리들의 공허하고 현실성 없는 책상머리의견에 동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일은 아침에 출발하여 크림반도의 잔코이를 둘러보고 헤르손까지 밤까지는 나올 작정이다.

**11월 20일 셋째날**

아침 8시에 호텔을 나와서 공항에 도착하여 크림반도의 심페로폴공항으로 1시간 30분 비행하였다.(9시 40분→11시 20분) 공항에서는 대사관에서 미리 주선했던 렌트카(벤츠SUB)를 타고 잔코이로 이동하였다.

잔코이는 인구 5만명 정도의 군청소재지로서 철도역과 공항이 있는 크림지역 물류중심지이다.

심페로폴 공항에서 잔코이까지는 차량으로 1시간 거리이고 공항입구에는 타타르인들이 무단 점거하여 지어놓은 움막과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흙벽돌집들이 흩어져 있었다. 렌트카 기사와의 대화를 통하여 밝혀진 잔코이 농업관련정보는 다음과 같다.

밀, 보리, 옥수수 등 곡물과 포도, 사과 등 과일을 재배하는 토양이 비옥한 平野地帶이다.

겨울날씨는 영하와 영상을 오가는 온난한 기후이고 여름에는 30~40℃로 덥다. 첫서리는 11월에 오고 3월 중순에 모든 작물 파종을 끝낸다. 철도역과 공항이 있다. 공항은 군용공항에서 민간소유로 변화되어 수송기와 경비행기 정도가 뜨고 있다. 아프리카 앙골라까지 가는 정기비행기도 있었다.

온천이 잔코이에서 30km떨어진 메드베디에카 지역에 있다.

군청회의 가기 전에 온천 지구를 둘러보기로 하였다. 가는 길가에 포도농원이 있었는데 하도 방대해서 물어보니까 포도주 공장 직영농장이라한다. 평야를 가로지르는 관개시설이 짜여져 있었다.

온천은 마을 인근에 있었는데 Pump없이 자연 용출하는데 압력이 3kg/cm<sup>2</sup>에 달하고 학교와 유치원 난방용으로 쓰고 남은 물은 그냥 버리고 있었다. 버리는 물은 40℃정도로 온천수 온도는 70℃에 가깝다고 하고 물에서 유황냄새가 심하게 났다.

깜짝 놀란 것은 온천수에 메탄가스가 섞여 있어서 이를 분리하여 노천에서 활활 태우고 있는 광경이었다. 메탄가스의 악취를 없애기 위함일

것이다. 다시 잔코이군으로 돌아와서 3시로 예정된 군청관계자와의 회의를 시작하였다.

참석자 : 부군수(루슬란 아나톨리에비치), 메르베디에카 이장(니콜라이그리고리비치(온천수)), 농업국장(알렉세이 블라디미르비치), 법률고문(마리아 바실리에바) 등 회의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농업투자환영(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는데 합의)

1. 온천지구 메르베디에카 KOICA사업용으로 3ha임대 가능함
2. 온천 인근 지역의 농지 500ha(내가 별도로 요구하였음 : 온천수를 이용한 채소온실단지용) 임대가능하나 관개시설문제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함
3. 토지임대료는 국가예비토지의 경우 10\$/ha, 민간에 이미 분양된 농지를재임대할 경우 20~30\$/ha정도이며, 임대료는 현금 또는 현물로도 가능함. 토지임대는 국가예비토지는 군청과, 그리고 개인지분토지는 개인과 임대계약해야 하고 최장 49년 임대이고, 표준임대계약서를 공증하여 측량지적공사에 등록하면 법적효력 있음.
4. 대사관에서 소개한 Yasnopolaya지역은 파산상태이므로 전체농장을 한꺼번에 인수할 수 있으며(법정정리 또는 채권정리방식) 현재 논도 다수 있고 구 집단농장에서 경작중임. 야스니아 몰라, 13,269.1ha 중 7,500ha 농지, 이 중에서 3,500ha개인지분농지와 800ha국가예비토지 임대가능. 구 농장이 파산직전이므로 시설인수가 가능 (법정부도정리 또는 채권인수 방식)
5. 메르베디에카 온천지역 : 500ha 임대를 요청했으나 국가예비 토지를 포함하여 300ha정도는 당장 임대가능하고 추가적으로 확보가 가능할 것임. 온천수를 이용한 대규모 채소단지 개발 적지. 한국의 채소 하우스 농가를 선별 유치하여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 있음. 딸기, 시금치, 오이,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상추 등 고품질 동계 야채생산지로 개발. 생산주체는 전문분야별 한국농기업이고, 노동력은 고려인 포함한 현지주민임

대사관에서 계획중인 KOICA자금에 의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은 고품질 채소 하우스경영기술이 되어야하고 운영주체는 현지진출 농기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국에서 진출희망 농기업을 선발하여 재방문하여 잠정경영계획서 제출할테니 KOICA 사업내용을 채소단지조성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연계해 줄 것 등을 귀국하기 전 대사관과 협의할 생각이다.

## 11월 21일 넷째날 맑음

호텔(페르캣트 фРЕГАТ)에서 바로 앞으로 강변에 대형 조선소가 있다. 주로 중소형 선박을 제조하는데 강물의 수심이 15m이상이라 큰 배가 접안가능하고 흑해로 연결된다고 한다. 헤르손지역에도 온천수 분출지역이 있다고 한다. 아침 헤르손 주 담당자와의 Meeting시간 이전에 둘러보려고 마음먹고 Taxi를 불러 탔다.

Taxi운전수에 의하면 남방으로 해안가에 10여m나 분출하는 유황온천이 있어서 가족과 두어번 목욕을 하러 갔단다. 온천수는 그냥 버려지는 모양이다. 강 건너편으로 40여분 달려 도착한 온천수는 그냥 늪지대인데 물은 바깥 땅이 살얼음이 얼어 있기 때문인지 뜨뜻하지도 않았다.(대강 10℃ 정도 되는 듯 하다.) 요오드 성분이 많아서 관절염 치료에 좋다고 한다.

이 지역일대 땅은 모두 모래땅이다. 그래서 이용되지 않고 갈대와 억새풀만 무성하였다. 이런 이용되지 않는 땅이 강 양면으로 광대하게 펼쳐져 있었다. 양계와 양돈 등 축산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적지이다.

서둘러서 hotel로 돌아오는 길에 고려인 張氏가 호텔에 도착해서 기다린다는 전갈이다. 아침식사를 거르기로 하고 헤르손 주 농업개발부 청사로 향했다.

면담자는 농업개발부 담당 여국장인 고르벤코 스비티라나(Chief of dept agricultural development)와 보좌관 여자 1명, Svitilana는 첫마디부터 농담으로 시작했다. “헤르손주는 5개의 바다(maar)가 있다. 흑해, 아조프해, 모래, 밀, 여자.가 많다는 것이다. 나는 “여자의 바다”에 깊은 관심이 있다고 응수했더니 까르르 웃었다.

헤르손주의 인구는 100만명인데 농경지면적은 190만ha에 달한다고 한다. 1950년대 33만ha에 관개시설이 건설된 후 농업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북부 토지는 유기물함량이 2~5%이지만 남쪽은 0.3~0.4%정도로서 척박하여 작물경작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구 집단농장인 국영농장이 520개, 개인농장은 2,800여개에 달하는데 영농면적은 50~3,000ha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농지私有化증서를 받은 농민 수는 13만 4천명이고 개인별로 4~9ha의 토지가 분배되었다. 분배토지는 전체 토지의 95%수준이고 나머지 5%가 국가예비토지이다.

현 토지법에 의하면 토지의 판매 및 상속은 불가능하다. 외국인 개인 및 법인도 토지임대가 가능하며 최장임대기간은 49년이다. 그러나 초창기에 개인 간 또는 회사들과의 임대계약(임대료 21불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계약의 취소, 해지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임대기간은 최초 5년간으로 하고 임대계약이 성실히 이행되는 것이 확인될 때 25년 내지 49년 임대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한다.

30,000ha이상 4개소, 10,000ha이상 18개 대형농장이 운영중이고 대형 농기계 사용비율이 증가추세에 있다. 砂質土에서는 관개시설이 되는 곳은 콩, 유채 등이 재배되고 점적 관개시설을 이용하여 채소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희지는 3년전 25만ha였으나 현재 65,000ha로 줄고 있다.

곡물재배 69만ha, 해바라기 25만ha, 콩 9만ha, 유채 9만ha, 채소 4만ha, 감자 2만ha, 벼 만오천ha 중 5,000ha가 재배되고 있고, 농업단위당(ha당) 생산성은 토마토 70~80t, 양파(관개지) 100t, 유채 1.4~4t, 곡물 2.5~3t(미관개), 7-8t(관개지), 옥수수 8t, 벼 7~8t 등이다. 헤르손주 농업이 당면한 고민은 생산성이 낮은 미관개지가 많다는 점과 砂質土가 많다는 점이다.

나는 물이 모자란다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했다. Israel은 400km떨어진 갈릴리 호수에서 끌어온 물로 고급농산물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축산을 통해서 유기물을 토양에 공급하면서 자연순환방식에 의한 농사를 지향해야한다고 역설했더니 놀란 표정으로 수긍하였다.

또한 생산만 잘해서는 주민소득이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다. 생산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물류와 상류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생산자는 높은 값을 받고 소비자는 낮은 값을 지불하게 된다고 했다. Kiev시장에서 형성되는 높은 채소가격에도 불구하고 생산자 수취가격이 낮은 이유는 유통비용이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관료와의 회의결과를 설명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대표적으로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농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체제전환 국가들은 오히려 생산에 대한 간섭은 강화하면서 유통은 민간부문에 전적으로 방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두말없이 수긍하였다. 오랜만에 말귀가 통하는 관료를 만난 셈이다. 그래서 양측의 분위기는 급속도로 호전되어 세 가지 중요한 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첫째, 경종농사와 축산농사를 연결시키는 자연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자.

둘째, 기계의존적인 대경영체제인 곡물농사보다 노동의존적인 고품질 채소생산농업이 지역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셋째, 이 지역여건을 종합할 때 채소농사의 적지임은 분명하나, 동시에 유통Infra가 갖춰지지 않으면 성공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러한 승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雙方의 이익실현이라는 입장에서 우리 측에서 사업추진계획을 만들어 제시하면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협조를 제공할 것이다. 협조의 내용은 인적·물적·제도적 모든 측면이라는 점도 그쪽에서 확인해주었다. 특히 유통혁신을 위해서는 Know-how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용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개방으로 遊休化될 농업기술인력과 자본의 새로운 고용기회를 찾고, 이를 통하여 현지고려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이번 조사여행의 결실이 헤르손주에서 하나 맺어지는 것 같아서 대단히 기뻐다.

주 청사를 나서자 니콜라예프에서 우리를 마중 나온 '루드밀라박'이란 고려인 회장과 그녀의 남편인 목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같이 좁은 차를 타고(5인) 니콜라예프를 거쳐서 오데사로 향했다. 니콜라예프의 일식집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었다.

니콜라예프에서 오데사까지 가는 대로변에 대형농장들이 여러개씩이나 부도상태인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치 러시아 남부 크로스나도르의 Mr.Kim이 소개한 농장을 연상시키는데 텅빈 집들과 창고, 그리고 을씨년스러운 학교…….

오데사 공항에서 확인한 결과 모스크바에서 오데사까지 매일 1편의 항공편이 있었다. 밤에 Kiev로 돌아와서 전에 머물렀던 그 방에 다시 투숙하였다. 너무 피곤하고 피곤하다. 그러나 큰 일을 해냈다. 흘러넘치는 온천수를 이용하여 과수단지와 헤르손 주에 설치할 유통Center 등…….

### **11월 22일 다섯째날 흐립**

새벽부터 일어나서 대사에게 보고할 여행결과자료를 정리하였다. 그냥 가도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편의를 봐 주었는데, 그리고 본국과 계속 연락할 일에도 도움되라고, 무엇보다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어제 헤르손 공항에서 구참사에게 오늘 오전 중에 허대사를 뵙고 여행결과를 전하겠다고 예약해 놓은 터이었다. 오전 8시 50분 대사관측에서 보내준 차를 타고 대사관으로 가서 대사를 만났다.

대사에게는 4쪽짜리 보고서를 주고 필요한 설명을 간략하게 했다. 여수박람회건이 제대로 안된 모양이다. 대사관 분위기가 썰렁하다. KOTRA에 들러서(Kiev 사무소) 소장을 만나고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한 뒤 유일한 한식집에서 김치찌개를 시켜먹은 뒤 2시 40분 Kiev→Moscow 비행기에 올랐다. 4시 30분 Moscow도착(+1시간), 거기서 2시간 빈둥거린 뒤 7시 30분 서울행 비행기에 Boarding, 거기서 9시간 이후(+6시간) 내일 아침 10시 전후에는 인천착이다. 출발지연 없이 무사히 출발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이제 닷새간의 우크라이나 조사여행은 끝난다. 한국농업의 새로운 영토를 크림반도에 장만하자. 내 조그만 노력과 정성이 큰 꿈의 기초역할을 수행한다면 그 보다 보람 있는 일은 없을 터, 부지런히 생각하고 설명하고 설득하자. /

## 연해주 고려인 농업정책 지원사업과 연해주 농업

동북아평화연대 신명섭

### 머리말

동북아평화연대와 연해주 고려인 희망본부는 고려인들의 역사 속에서 연해주에서의 고려인 농업 정책의 필연성을 확인하고, 2004년부터 연해주내 혹은 중앙아시아로부터의 농업이주정책사업을 지원하여 왔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1헥타르당 2,000달러를 넘나드는 지대와 월10%이상의 고리대속에서 농사를 포기할 것인가? 춥고 치솟는 물가지만 그래도 땅을 확보하고 농사를 지을 최소한의 조건이 되고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해결되는 연해주에서의 농업을 선택할 것인가의 귀로에 서 있다.

최근의 4년 동안은 연해주에 농업정책의 근거를 만들어보기 위한 실험의 시간들이었다. 성과도 있었고 일부 실망도 있었다. 하지만 고국의 많은 동포들의 관심과 애정어린 도움은 '도' 아니면 '모'가 아니라,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었고 연해주 고려인 희망본부와 동평은 겸손하게 그 성과들을 모아가면 되는 것이었다.

농업지원사업 3년차를 마무리하며 중간평가를 해보고 다음 계획과 전망을 가져보고자 한다

### 2. 지난 3년간의 정책 지원 사업 (2004~2007)

주택지원 43 가구 , 농업 대출 지원 - 100여가구 , 지역 센터 설립 6개 지역 6개, 고향마을 농장 조성 시작 자연농업 시범 마을 , 평화농장 운영 (프림코 농장) , 본격적 유기농 콩, 곡물 농업, 자연농업 교육 보급 , 청국장 사업, 소지원

## 우정마을 정상화 부터

농업지원사업의 전초기지로 한국의 주택건설협회가 1000가구를 목표로 진행하다가 31동으로 사업이 중단된 우정마을 정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정마을을 하나의 고려인 공동체 마을로 정상화, 안정화시켜 내기 위한 노력들이 2004년부터 진행되었는데, 솔빈 문화센터와 사택을 준공하고, 25동의 비닐 하우스를 보급하고, 청국장 공장(교육장)을 만들고, 제조방법을 가르쳐서 집집마다 고려인 청국장으로 수익사업을 창출하였다. 각종 문화교육과 풍물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이제는 행사, 축제등에 초청되기도 하고, 초기부터 한글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어느정도의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7년 8.15에는 미하일로프까군과 함께 500여명의 지역 다민족과 한국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다민족 평화축제를 우정마을내 공원에서 개최하며 어엿한 지역사회의 고려인 우정마을로 거듭나게 되었다. 한편 한국뿐 아니라 유럽 등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이제는 이주민들의 정착모범마을로 연해주내 명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텃밭이 작고 주변 농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농업마을로서 본격적으로 기능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1번국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사이 각지역으로 통하는 사통팔달의 요지에 위치하고, 다른 마을보다 훌륭한 주거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어 정착지원사업의 구심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초기 지원사업에 재외동포재단의 정기적 지원은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 연해주내 농업이주 사업 (주택지원사업과 농업대출)

이 사업은 중앙아시아에서 농사를 짓던 많은 고려인들이 농업정착을 희망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농사지을 농가와 농사비용이 없어서 그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연해주내 도시에서 빈민화 되어있는 고려인들 중 농업이주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05년 하반기 부터 시작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주택문제였다. 고려인은 채소와 가축을 키울 수 있는 텃밭이 있는 농가주택을 선호하였고, 동평은 미하일로프까 군내의 시골마을들 농가를 매입하게 하여 해결하고자 했다. 그간 다양한 단체, 개인들의 지원을 받아 자매결연 형태로 끄레모바 ,아시노브까, 쏘야센 마을 등지에 가구당 1500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약 40여채 이상의 주택을 확보 지원하였다. 이 가구들에게는 3000달러 정도의 농업자금을 대출하여 양돈, 양계, 비닐하우스, 밭농사 등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중 7가구 (4동)에 대출한 자연 양돈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자연양돈은 연변지역의 북방자연농업협회가 10여년 전부터 한국의 자연농업 영돈 기술을 전수받아 북방지역에 맞는 축산법으로 시험, 연구 수백가구에 보급하고 있는데, 그 경험을 연해주 고려인에게 전수 ,교육하여 준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중국 농산물과 경쟁하여야 하는 문제도 있었고 러시아 농촌에 주택도 수가 많지 않아 겨우 40여가구 확보과정에서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다. 러시아 정부가 우리의 이주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채택하여 본격적인 이주 사업을 돕고 나서서 대규모 이주 희망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주택에서 그 수요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음이 증명되었다.

초기에 아름다운가게, 사회연대은행, 자연농업협회, 그리고 많은 회원 시민들의 연대와 지원은 큰 기초가 되었다.

## 기존 정착 농가 지원( 자연농업교육과 자연농업대출 그리고 소지원)

신규 농업 이주 이외에 기존에 6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던 150여가구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2006년 겨울에 10회의 자연농업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70가구에게 1000달러씩의 자연농업 대출을 실시하였다. 500달러는 기존의 농업을 위한 대출로 하고 500달러는 새로 자연농업을 위한 자재와 종자등으로 대출을 하였는데 옥수수 종자, 고무통, 모터, 그물막등 자연농업을 위한 새로운 자재는 한국에서 공동으로 구입해와 나누기도 하였다. 이들은 주로 90년대 초반 이주하여 미하일로브까의 쏘야센, 스파스크의 치까로브까, 노보루사노브까 등지에 자리를 잡고 육묘와 비닐하우스 농법을 일찍 도입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구비하였으나 최근에 중국 농산물의 과잉 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었다.

새로운 이주자보다 먼저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잘 정착해야 다음 사람들도 농업을 잘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중국농산물과의 경쟁과 장기적 고려인 농업을 고려하여 중국식의 관행농업과 차별성을 갖는 “고려인의 자연농업”이라는 시도로 진행되었다. 재외동포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도움이 컸고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하반기부터는 당장의 농가 소득의 실질적 증대를 보장하여 줄 방법의 하나로 소 대출을 시작하고 있다. 어미소 두마리를 잘키워 우유를 내면 한달에 약 200달러 이상의 현금소득이 보장되고, 연해주의 자연환경에는 소사료에 대한 부담이 거의 적고 러시아인들이 치즈, 유산균등의 유제품 시장이 넓어 매우 유리한 종목이다. 한마리에 800달러쯤 하는 소를 지원받으면 3년후 다른 농가에게 지원하여 주어야 하며 후원인은 4인이 200달러씩 모아 한마리를 지원한다.

## 70 70 사업

고려인은 중앙아시아와 연해주등지의 러시아 사이에서 이산화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쪽도 저쪽도 정착이 만만치 않아 유민화되어 있는 것이다.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을 맞아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징적으로 이들의 고향을 알리고 다음 사업의 초석으로 삼고자 70명의 이산가족의 상봉 이주를 지원하자는 사업이었다. 현실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SKC 등의 지원으로 60명의 상봉 이주를 지원하였다. 초청하는 가족들은 먼저 6개 마을에 이주하여 살던 사람들 중 희망자들에 한하여 신청을 받았다. 이들은

1인당 300달러씩의 교통비 지원, 200달러씩의 국적회복지원, 가구당 2000달러의 주택비 지원, 1000달러의 주택마련 대출, 3000달러의 농업대출, 월 300달러 이상의 동계 일자리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 중 4가구는 쏘냐센의 고향마을 신축 부지로 이주하여 고향마을 건설과 청국장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MBC의 강제이주 70주년 특집 2부작 “귀향” 으로 방영되어 일반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 6곳의 지역농업센터

2006년 1년동안 미하일로프카와 스파스크지역에 6개의 지역 이주민 농업지원센터가 만들어졌다. KBS 6시 내고향 백년가약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우정마을에 그루터기 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삼성봉사단이 끄레모바 마을 사랑방을, KBS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쏘냐센 보금자리 센터와 치카로브카 아름드리 센터를 자원봉사단체인 코피온에서 아시노브카 센터를, 노보루사노부카 고려인이 자신의 집을 센터로 제공하여 6개의 센터가 만들어 진 것이다. 특히 첫 농업센터 그루터기 건축을 지원한 노블하우스는 이후 정착지원사업에 다방면의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각 센터에는 한국의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파견되어 한글교육을 기본으로 하며 현지의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센터를 운영한다. 한국의 여러 단체에서는 이들 센터를 매개로 의료봉사, 문화교육, 농업교육등의 파견 활동이 이어지고 여름 방학때에는 학생들의 농활과 캠프 등이 이어진다. 서울대병원, 사랑의 리퀘스트, 다음한의원등의 의료봉사 활동, 문화재청, 강원도청 등의 문화 강습, 중국북방자연농업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등의 자연농업교육 마리학교, 조선대, 경북대, 대일외고등의 농활이 이어진 것이다. 동절기에는 마을의 고려인들의 생일, 한갑, 돌 잔치등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센터는 한국의 많은 연해주에 대한 관심과 지원활동 동력을 지역사회에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북방공부의 베이스가 되고 있기도 하다.

## 고향마을 조성사업

2007년 초에 대한주택건설협회로부터 우정마을 건설본부로 쓰던 90ha 27만평 (밭 9만평)의 로지나 농장(구 연해주 최대의 계사)을 기증받아 쏬야센25고려인 가구와 새로 이주한 가구들이 힘을 모아 자연농업 시범 고려인 마을 “고향마을 농장”을 조성 중이다. 현재 4가구가 입주한 이 마을에는 약15가구의 고려인들이 입주할 예정이고, 자연농업 방식의 돈사, 계사, 우사와 채소 비닐 하우스 단지, 청국장, 된장 등 장류 가공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 30ha의 밭에는 감자와 옥수수 등의 농사가 진행될 것이다. 동평의 농업센터도 2008년초에는 우정마을에서 고향마을로 이주할 예정에 있다. 한편 이 마을 한쪽에는 대규모 청년 텐트 캠프장을 조성하여 동북아 평화, 생태 교류의 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 가칭 평화농장( 끄레모바 지역의 프림코 전 고향 농장) 매입과 본격적 연해주 농업

고합이 운영을 포기한 한.러합작 끄레모바의 프림코 농장의 지분인수를 2007년 10월 마무리 하였다( 지분 54.6%). 원래는 4200ha규모의 농장이었으나, 약 10년간 방치되어 720ha의 토지만 남긴채 나머지 토지는 군과 개인에게 토지가 반납 또는 이전된 상태였다. 하지만 10년이상 제초제, 화학비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콩, 보리, 밀, 귀리 등을 윤작으로 생산하여 자연농업 생산지로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농장에서 생산한 콩으로 약 50가구의 고려인 가구가 청국장등을 생산하여 한국의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 농장은 원래 사료 농장 시설이었는데 현재 침체 상태에 있다. 마을에서 고려인들이 다시 시도중인 돼지, 소 등의 자연축산에 필요한 유기농 사료를 보급하는 방향으로 사료농사를 재개할 것이다. 옥수수생산과 사료가공시설이 들어서면 작지만 실험모델로 충분히 기여하게 될것이다., 한약재, 묘복등 각종 새로운 종자와 작물도 실험될 예정이다.

### 청국장등 장류 가공 사업

한국의 유명한 사회단체인 고도원의 아침편지에서 현지를 방문한후 금년 10월부터 콩의 원산지인 연해주 (가칭)평화농장에서 생산한 콩과 연해주 시오티알렌 산맥에서 채취한 차가버섯으로 만든 차가 청국장을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인터넷판매를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좋은

먹거리 뿐 만아니라 조상들의 채취가 서려있는 연해주에 재이주 고려인들의 정착을 돕는다는 취지가 잘 알려져 새로운 형태의 신뢰의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4년 우정마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고려인 차가 청국장은 이제 고려인들의 명물이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메주, 된장, 간장, 고추장, 장류 등으로 그 생산을 확대해 갈 것이다.

### 3. 고려인의 농업정착을 통한 연해주 농업의 접근에 대한 평가

이주 정착 지원사업에 대한 연해주 정부의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 연해주 정부는 현재의 농업이주 정착사업을 매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인구에 비해 땅이 너무 넓은데다가 극동지역에서는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여 고민인 러시아 정부는 2007년부터 2개년씩 3차에 걸쳐 해외동포 이주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특히 연해주 농업을 위하여는 초기 연해주를 개척한 고려인들의 재이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동평에서 진행하는 농업정착 지원 프로그램도 제안되어 있는데 1차년도 계획에는 몇가지 이유로 인해서 채택되지 않았지만 2009년부터 시행되는 2차 계획에는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1990년대부터 시도된 이전의 몇 번의 고려인 농업 이주 정책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해 동평의 새로운 시험에 대하여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 덕분에 각 지역의 농업센터 사업등을 비롯하여 동평의 여러가지 지역사업이 군과 정부의 협조 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양돈으로 상징화 되고 있는 자연농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북아 유기농 기지로서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고려인의 자연농업 모색과 시도는 연해주의 청정한 자연과 결합하여 연해주를 동북아 유기농기지로서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러시아 시장을 대상으로는 채소와 축산 등을 중심으로 자연농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을 대상으로는 청국장등의 콩가공을 통하여 시장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련이 붕괴하고 이 지역 농업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역으로 화학제로 부터 보존된 땅을 다시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고향마을 농장의 실험을 통해

자연농업이 일정한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가칭 평화농장이 정상화되면 고려인의 자연농업브랜드는 더욱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고려인 농업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며 한국과 북한의 진출의 토대가 준비되고 중국의 동포들이 돕고 있다.**

6개 마을의 6개 센터와 200여 가구는 내부 거래도 조금씩 시작되고 있으며, 왕래가 잦아지고 있다. 고려인 농업 공동체 사회가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마을에 있어도 서로 왕래가 없었던 고려인들이 센터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으며 갖가지 행사도 생기고 있다. 우리의 연해주 농업의 기초는 이런 농업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쏘야센의 고향마을 농장이나, 끄레모바의 평화농장같은 규모있는 농업으로의 접근도 자연스럽게 기회가 오고 있다. 한국의 농업진출도 이런 마을공동체를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이후 북한의 농업진출도 이들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37년 이전 하나의 공동체로 지내다 강제이주로 단절된 연변과 흑룡강 중국동포들의 경험과 교류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양돈기술 지원, 청국장제조를 위한 가마솥, 분쇄기, 콩선별기 등의 지원, 상호방문 등 많은 방면에서 교류가 늘어가고 있다

#### **4. 고려인 농업정착지원 사업과 연해주 농업진출을 위한 제안**

그간의 실험 대출사업을 안정적인 신탁으로 발전시키자. 현 시기 연해주 농업고려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농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다. 중앙아시아보다는 덜하지만 연해주도 아직 높은 사채를 쓰고 있고 일반 농민이 러시아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는 힘들다. 이주 초기의 불안한 신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러시아에는 중국과 달리 다양한 금융제도가 인정되고 있고 '오베까' 라는 신탁같은 조직도 허용되고 있다. 스파스크 지역 상공 고려인들은 일찍 깨닫고 상공신탁을 작지만 성공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있다. 이를 모델로 하여 그간의 대출 사업을 러시아 공식적 금융기관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한해 농업에 약 2000 3000달러의 자금을 저리로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매우 큰 발판이 될 것이다. 바람직한 모델을 예로 들면 고려인들이 최대 개인당 2000달러정도를 목표로 100여명 정도가 조직되고 그만큼을 한국의 금융기관이나 농업기관이 지원하는 정도면 초기 규모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년 10%정도의 이자를 상정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저리이면서 충분히 운영자립이 가능하다. 모델이 성공하면 지역마다 유사한 실험을 만들고 이들의 협의체와 그간의 마을들이 협력하면 하나의 훌륭한 경제권이 될 것이다.

## **2009년을 대비하여 이주할 주택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입 및 리모델링**

2009년에는 러시아 정부가 해외동포이주정책에 우리의 고려인 이주 정책을 포함시킬 확률이 매우 높다. 제일 큰 문제는 주택문제이다, 일단 가능한 농가주택을 매입하고, 각 지역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건물들을 인수하여 수리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규모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 건물들은 이후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할 때에도 역시 매우 적절하게 사용될 것이다.

농업센터 신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업 진출에 활용하여야 한다. 시베리아를 거쳐, 중앙아시아까지 고려인 20~30가구가 있는 농촌마다 마을 센터를 만들어 구체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이후 유라시아 시대를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한국의 투자는 센터가 마련된 마을부터 농업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센터가 생기고 고려인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마을 농장에 대한 정보가 흐르고 경제 차원에서의 모색이 시작된다. 연해주에서의 본격적인 한국농업 진출은 좋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센터가 존재하고 고려인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한결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것이다. 쏘야센의 고향농장 건설이나, 끄레모바 농장의 사례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다.

고려인 농업과 관련된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여 인력, 세금, 시장 확보 등의 측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인정 범주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의 하나로 어려운 지역의 동포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원 공익사업도 인정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 한국의 청년실업이나, 농민의 해외진출이라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 비전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연해주 고려인들의 정착은 선차적이고 필수적인 문제이다.

민관 합작 시범농장을 운영하여 경험을 공유하자. 더 이상 연해주 농업 진출에 한국정부가 주저해서는 안된다. 환경, 기후, 곡물가, 에너지 등의 문제가 시기의 절박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 진출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현지 ngo와의 협력 시험 방식도 위험을 줄이고, 저 비용과 리스크로 현지에 진출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평화농장을 그런 실험농장으로 쓰기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그런 농장을 기반으로 한국의 농기계들을 활용한 농기계 사업단 같은 것을 구성하여 각 농장을 지원하는 사업은 당장의 수익사업으로도 타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 5. 전망

### 나진, 선봉 개발과 두만강 다리 그리고 연해주 농업

연해주 농업의 생산물과 극동의 자원은 두만강과 나진을 통하여 전 북한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나진을 동북아 물류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당장은 북·러 간의 유연한 물류를 위하여 육로다리가 놓여져야 한다. 아직도 러·북 간의 다리가 없다는 것은 동북아가 냉전중이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육로가 놓여지면 물류비가 줄어들고 러시아 극동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 한반도 종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단 연결과 연해주 농업

현재의 연해주 농업사업은 모두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남북교류시대와 더불어 한반도 종단철도와 연결되면 이 지역은 우리의 생활권으로 급속하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

### 좀 더 길고 넓고 깊게 생각하여 구체적이고 희망있는 비전을 만들자

- 통일, 인구, 환경, 기후, 유라시아시대의 한반도와 연해주

SBS의 “IMF 10년 한국 사회 진단”이라는 프로에서 한국사람들이 10년후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환경과 기후문제이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집값이 높고, 경쟁이 치열한 한국사회를 남북교류와 동북아시대를 준비하는 흐름과 궤를 맞추어 새롭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양 축으로 하는 유라시아 시대 동쪽 관문으로서의 한반도와 연해주의 역할을 상정하여 좀 더 넓고, 역사적인 안목의 준비가 필요하다 /

# 해외농업 현황 및 환경조사에 대한 제언10)

## - 중앙아시아 -

한농복구회 이정식



10) 본 원고는 2008.1.17일 개최된 해외농업환경조사 사업 발전방안 토론회시 발표한 자료입니다.

## I. 키르기즈스탄 현황

### 1. 키르기즈스탄 국가 개요

- 1) 국명 : 키르기즈스탄 공화국 (30인의 소녀라는 뜻)
- 2) 수도 : 비슈켄(Bishkek, 100만)
- 3) 위치 : 중앙아시아 (중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과 접경)
- 4) 면적 : 198,500km<sup>2</sup> (남한의 약 2배 정도)
- 5) 인구 : 약 500만명(2002 현재)
- 6) 평균 수명률 : 남성-58.32년, 여성-69.53년
- 7) 기후 : 건조한 대륙성기후로서 1월 평균기온이 -18℃이며 7월 평균기온은 12~20℃ 정도이다. 연 강수량은 400~600mm이며 토양은 산악지대의 초지(草地)와 스텝, 그리고 일부는 사막토양이다. 중앙아시아의 동북쪽 천산산맥과 파미르 산맥에 위치한 3/4지역이 만년설과 빙하로 덮혀있고 지진 다발지역이라서 지진연구소가 따로 있다. 여름은 건조하고 따뜻하며, 겨울에는 골짜기나 산기슭은 비교적 강우량이 있는 편이고 기온도 높다. 인구는 추이, 탈라스, 이수쿨, 페르가나 등의 계곡과 저지대에 몰려 있다.
- 8) 주요민족 : 키르기즈인 52.4%, 러시아인 15%, 우즈베크인 12.9%, 우크라이나인 2.5%,독일인 5%, 기타 5%
- 9) 국가성립 : 91.12. 21
- 10) 정체 : 공화제(대통령 중심제)
- 11) 대통령 : 바키예프 (Bakiev Kurmanbek Salyjevich)
- 12) 국제기구가입 : UN(92.3)
- 13) 중점경제정책 : 시장경제제도로의 점진적 이행, 사유화 및 민영화 작업 진행
- 14) 화폐단위 : 솜(Som)/100\$ 4,550 SOM (2003. 4.18)
- 15) 주요자원 : 석유, 석탄, 안티몽, 수은

### 2. 자연환경

지리적 조건 - 동서 900 km, 남북 410 km의 짧은 거리에 지형의 변화가 많은 산악국이다. 산지가 약 92 %, 경작 거주지인 평야지가 8 % 정도이며, 국토의 평균해발고도가 2,750 m이다. 수도인 비슈케크도 해발고도 774m의

고지에 위치한다.

기후 - 산악국가이므로 해발고도와 사면의 방향에 따라 달리 나타나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서부와 북서부의 산록에서는 강수량이 800mm, 곡저분지에서는 200~300mm 정도이나, 해발고도 3,000m까지는 높아짐에 따라 강수량이 증가하나, 3,000m 이상에서는 여름에도 비가 눈으로 되어 내린다. 이러한 강수량은 텐산산맥에서 풍부한 복류수(伏流水)가 되어 오아시스를 만들어, 관개나 생활·산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해발고도 774m에 위치한 비슈케크의 연강수량은 363mm이나, 해발고도 1,768m인 프르제발스크에서는 460mm이다. 1월 평균기온은 모두 -4℃이나 7월 평균기온은 비슈케크에서는 25℃, 프르제발스크에서는 18℃가 된다. 하곡에서의 평균기온은 1월이 -7℃이고, 7월은 15~29℃이다.

### 3. 주민·언어·종교

주민의 약 52.7 %는 키르기스인(人)이며, 다음으로 러시아인이 23.5 %, 우즈베크인이 12.9 %, 우크라이나인이 2.6 %, 독일인이 2.4 %, 타타르인이 1.6 %, 그 외에 소수민족이 5.0 %에 이른다. 이 중에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된 한국인 1만 9355명이 있다. 주민은 3 % 전후로 높은 출생률을 나타내나, 사망률은 7~8 %로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다.

언어는 터키어의 방언인 키르기스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으나, 민족간의 공통어로서 러시아어를 인정하고 있다. 러시아인 등 유럽 계통의 주민은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다민족 국가이므로 다언어 사용집단이 있어, 2중·3중의 언어사용자도 많다. 즉 러시아어와 각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련시대에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정하여 교육을 통한 보급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종교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등을 제외하면 이슬람교를 믿으며, 독립 후 이슬람 부흥운동이 있으나 원리주의로의 복귀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4. 생활

전통적인 유목민족이었던 키르기스인들은 이동이 용이한 텐트인 유르트(Yurt)에 살면서 그들의 생활에 적합한 문화를 발달시켜 왔다.

겨울에는 모든 일족들이 함께 모여 거주하고 여름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 텐트를 줄지어 짓고 거주하면서 목초지를 이용한다.

키르기즈인들은 "손님은 신의 선물, 오랫동안 머물러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속담 외에 손님을 접대하는 것과 관련된 많은 잠언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의 사람들은 사람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손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악수를 하는데, 오른손으로만 했을 경우에는 사악한 마음이 없음을, 양손으로 했을 경우에는 서로의 정이 깊음을 표현한다. 손님에게 차를 대접할 때는 뜨겁게 마실 수 있도록 조금씩, 차잔이 빌 때를 기다렸다가 따라주는 등 극진히 접대한다. 키르기즈 문화는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노인들을 특별히 존경한다. 노인들에게는 존경의 표시로 '악사칼'(백발)이라는 칭호가 주어진다.

## 5. 한국과의 관계

### 1) 공식적인관계

구분	한국	비고(북한)
외교관계 수립일	92.1.31	92.1.21
공관설치일	2001.교육인적자원부 문화원 개원	
대사 파견	2007년 9월 임시대사 파견	
주한 공관	2008년 초에 정식대사관 업무 예정	

### 2) 주요인사교류

- 93.8 칭기셰프 총리 방한
- 94.3 주말굴로프 총리 방한
- 97.2 미르자칸 국방장관 방한
- 97.6 아카예프 대통령 방한
- 02.5 에밀 대통령보좌관, 아카예프 상의 의원 방한 (돌나라 한농, 여수 엑스포 초청 방문)
- 07. 11 국무총리 방문

## II. 돌나라 한농 농장 현황

### 1. 돌나라 한농에서 키르기즈스탄을 해외농업 적지로 선택한 이유

1) 무공해 나라이다 - 농업에 있어서 아직까지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았다. 재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 목축에 더 의존하는 나라이기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비슈켈 시내를 벗어나면 어느 곳을 가든지 평화롭게 말들과 양들이 풀을 뜯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유기농에 적합한 이런 초지들이 유기농 단체인 돌나라에게는 기회의 땅이 된 셈이다.

2) 청정지역 이스쿨이 있다 - 이스쿨은 키르기즈의 태양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지역이다. 구 소련 당시에 이스쿨은 소련 공산당 고급 간부들만의 휴양처로 사용되었으며 일반인들의 출입은 통제된 지역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그린벨트와 같이 개발제한과 환경보전에 관한 엄격한 통제 아래 유지되어왔으며 현재 유네스코 세계 생태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있을 만큼 청정지역으로 보전되어왔다. 청정지역 이스쿨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천연치료를동을 펼치고자하는 돌나라의 지구환경회복운동을 힘 있게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한국과 문화적 동질감이 있다 - 손님을 후대하며 노인을 공경하고 깎듯한 인사와 예의를 존중하는 키르기즈 민족의 문화는 돌나라 회원들이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러시아 연해주의 해외농업 경험을 되돌아 볼 때 그 지역의 좋은 땅 못지않게 지역 주민들의 좋은 마음이 성공적인 해외농업의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4) CIS 15개국 중에서 가장 앞선 민주화를 이룬 나라 - 오랜 세월 공산국가로 운영되었지만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가장 빠르게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였다. 초대 대통령인 아스칼 아카예프는 학자 출신 정치인으로서 친서방 정책을 펼치면서 수도 비슈켈 만나스 국제 공한 인근에 미군 공군기지를 받아들여 국가경제 부흥에 힘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정부패를 이유로 시민들의 쿠데타로 2대 대통령이 된 바끼예프 역시 친서방 민주화 정책을 이어 투자의 유치와 외국 자본의 유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 2. 키르기즈스탄의 돌나라 농장들

### 1) 제 1농장 차이카

현재 돌나라 농장의 대부분은 이스쿨 주변에 위치해있다. 그 중에서 출판아타에 있는 차이카(갈매기) 농장은 돌나라 키르기즈스탄 농장의 본부 농장으로서 32ha의 농장 안에는 교육기관과 시설하우스, 가공공장들이 갖추어져 있다. 돌나라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고려인과 조선족 기술자들의 자녀들을 교육하여 농업기술의 발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가공공장으로는 된장공장, 두부공장, 콩기름 공장등을 운영하여 1차 생산만으로는 취약한 농산물의 보관, 운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나아가 각종 주스와 즙 공장, 캔닝 공장 등을 추가로 신축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시설하우스 안에는 각종 채소를 재배하여 인근 시장과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여름철 휴양 성수기에는 선인장을 비롯한 화훼들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 2) 제 2농장 아나니예보

차이카에서 동쪽으로 1시간 거리에 이스쿨 지역에서 가장 넓은 경작지가 있는 아나니예보 면에 위치한 제 2농장이 있다. 자체 경작지 150ha에 밀농사를 하고 있으며 농장안 하우스에서 고랭지 채소들을 재배하여 인근시장과 알마타 시장으로 판매하고 있다. 2농장에서는 돌나라 한농의 해외농업의 주 목적인 안전한 농산물의 한국 수입을 위해서 밀을 유기농으로 재배하여 수입해 들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되어 해마다 양을 늘려온 유기농 밀의 수입은 2006년 2,000톤, 2007년 1,400톤 수입에 이어 2008년에는 7,000톤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농회원들의 자체 경작지 외로도 2007년 현재 약 700ha의 계약농사를 통하여 유기재배 관리하에 생산된 수입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근 농가의 반응들이 좋아 계속 계약 농가를 늘리고 있는 중이다.

### 3) 제 3농장 그즐수

1농장과 2농장이 이스쿨에 북쪽에 위치한 반면 3농장과 4농장은 이스쿨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그즐수 역시 50ha의 밀밭이 있으며 인근 지역에

계약농가가 있다. 계약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국의 인증팀이 심사하여 한국의 유기농 인증 기준에 맞도록 관리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농업환경은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건조한 기후로 한국에 비해 병해충이 적고 풍부한 일조량으로 생산성이 높으며 당도도 좋다.

홍수나 태풍 등도 거의 없으며 가뭄에 대한 수리시설도 잘 되어있어서 농사에 있어서 위험요소가 거의 없는 편이다.

#### 4) 제 4농장 알뜰꿈(금모래)

8ha 면적의 4농장은 농장이라기보다는 천연치료센터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돌나라 회원들은 오랜 천연치료의 경험을 통하여 공기, 흙, 물, 차콜(炭) 등을 이용한 치료 효과를 익히 알고 있다. 가벼운 질병은 물을 충분히 마셔주거나 온냉요법, 족탕법 등의 수치료를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으며 흙과 숯을 이용한 체내 독소의 제독을 통하여 암, 당뇨 등의 난치병까지도 치료가 가능하다. 농업기술자 가족들의 복지시설을 겸하여 휴양소, 치료소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 5) 비슈켈 인근의 시범농장 - 제 5농장 비노그라드

비슈켈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현지인들에게 돌나라 농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지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외농업 성공은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한국의 안정적 식량확보라는 실리만 추구한다면 인근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고 현지 주민들의 반발은 결국 정부의 반발로 이어져 해외농업을 위한 정착 자체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키르기즈스탄은 군부 쿠데타가 아닌 시민들의 쿠데타로 정부를 바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농 회원들은 현지 주민들, 더 나아가 키르기즈스탄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선 한국의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일을 병행하고 있다. 2007년 한 해동안 시범농장에서 시행된 벼농사를 5차례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다. 한국형 수도작이 키르기즈스탄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다. 대부분의 쌀을 수입에 의존하는 키르기즈 국민들에게 벼농사 보급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밖에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비노그라드(포도라는 의미)에 위치한 시범농장이다.

### 3. 해외농업을 성공을 위해서

- 2000년 시범농장을 시작으로 하여 7년 동안 키르기즈스탄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심사숙고함으로 해외농업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 1) 적합한 농업환경

우선 무엇보다 토질, 기후 등의 자연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 키르기즈스탄 농토는 한국에 비해서 유기질 함량이(4%)풍부하다. 가뜩이나 산성토양인 한국은 게다가 대부분 비탈진 산지라 폭우에 거름기가 쉽게 쓸려 내려가 강산성이 되기 쉬운 반면 키르기즈 토양은 유기질 함량이 풍부한 토양이 넓게 펼쳐져 있다.

봄철 가뭄과 여름철 홍수, 가을철 태풍 그리고 각종 병충해와 씨름하는 한국에 비해서 홍수나 가뭄 피해도 없고, 건조한 사막기후로 병충해도 없고, 풍부한 일조량으로 질 좋은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키르기즈스탄의 농업환경은 그야말로 천혜의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부족한 수분은 가능한 키르기즈스탄의 농업환경은 그야말로 천혜의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부족한 수분은 천산의 만년설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 가능하며 수리시설만 적절하게 갖추어져있는 곳이라면 별도의 위험 변수를 염려할 필요가 없는 곳이 키르기즈스탄이다.

#### 2) 한국인 관리자와 고려인 중간관리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키르기즈스탄에는 2만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다. 대부분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 또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과 소련으로 넘어간 한민족들의 후손들이다. 연해주를 비롯해 구소련 전역에 흩어져 살던

이들은 1937년 스탈린의 광기어린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곳곳에 버려지다시피 이주되어 험하고 어려운 생활을 지내야 했다.

한민족 특유의 끈기와 근면함, 탁월함으로 가는 곳곳마다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성공을 이룬 고려인들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자산이다. 이들은 현재 한국인과 현지인들 사이에서 통역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루는 것이 해외농업의 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실제로 이들과 협조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한 사업체들은 이들 고려인에 의해서 파산이 되는 경우도 자주 생기곤 한다. 돌나라 한농은 우선 이들과 뜻을 같이하고 가족적인 관계를 이루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금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가운데 가족 관계를 이루고, 돌나라 한농이 이루고자하는 지구환경회복운동에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음으로 신뢰 가운데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 3) 현지 주민들과의 친밀한 협력 관계

낮선 사람들은 사소한 일로도 현지 주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 특히나 해외농업의 경우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하다보면 현지인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나아가 주민들의 원성과 데모 등에 부딪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거의 현지 정착에 실패하게 된다. 자기 농장에 일하러 온 현지인들에게 대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자칫하면 정착 실패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일하러 온 현지 인부라 할지라도 친구처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어 현지인들의 마음을 얻게 되면 혹 정부나 기관과의 마찰이 있을지라도 지역 현지인들이 나서서 편을 들어주면 오히려 쉽게 풀어지는 경우가 있다.

제 5농장 시범농장 최재섭씨는 한국에서 농기계 등이 들어올 때 돌나라 회원들에게 부탁하여 헌옷 등을 모아오게 하거나 의류업체들로부터 기증을 받기도하여 인근에 있는 어려운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압이나 수지침 등의 의료봉사를 통해서 친근한 관계를 이루어갔다. 결과적으로 7년 동안 말썽없이 현지 정착에 성공하여

국영방송에서 모범적인 농장으로 방송도 나가고 벼농사를 통해서 키르기즈스탄의 농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상의 조건들 외에도 기술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인력과 재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좋은 땅과 좋은 마음을 통한 좋은 관계 형성이 해외농업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조건이 아닌가 한다.

#### 4) 제언

2002년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키르기즈스탄 농업 투자 환경을 조사한 자료는 개발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토지 이용에 관한 정책, 제도”의 깊이 있는 조사와 더불어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

## 함께 꾸는 농식품 수출의 꿈<sup>11)</sup>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

개방이라는 '양날의 칼'은 올해도 우리 농업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날의 칼이 갖는 속성처럼 개방은 상대 시장도 열리게 한다. 결국 개방 환경에서는 적극적 공격이 우리 시장을 지켜내는 데 효과적이다.

적극적 공격이란 다름 아닌 '수출'이다. 우리 농식품 수출이 성공을 거두려면 가치가 높아야 하고, 시장이 충분해야한다. 여기에 적극적인 마케팅이 수반돼야 한다.

우리는 '건강'이라는 컨셉트와 부합되는 한국 식품의 이미지,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시장, 정부의 다양한 지원 노력 등 어느 하나 손색이 없다.

여기다 지난해부터 147개 재외공관도 우리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 기대가 더욱 무르익고 있다.

### 해외공관도 수출전선에

재외공관이 개최하는 만찬 리셉션 등은 현지 여론 주도층에게 우리 농식품을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뉴욕에서 반기문 사무총장과 각국 외교사절 등 3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 한식 오찬을 베풀어 열렬한 환호를 받은 것이 좋은 사례다.

뿐만 아니라 재외공관은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농식품 홍보 관측

11) 이 글은 08.1.17일자 내일신문 22면에 게재되었습니다.

기능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지원 활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농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 이미지의 상승, 한식문화 홍보, 한류와의 연계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한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해외지사가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재외공관이 중심이 되고 코트라, 관광공사, 문화원 등 모든 기관을 망라한 농식품 수출확대전담팀을 조직하여 지원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농림부와 외교부는 지난 해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수출 활로를 찾는 데 국가적인 역량을 모으기로 합의한 바 있다.

주중, 주일 대사관은 현지 공관장회의를 열어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만큼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지난해 주덴마크 대사관을 비롯한 6개 공관에서 현지 여론 주도층을 타깃으로 한국 식문화 홍보행사를 성황리에 열기도 했다.

### **외교관은 한식문화전파자**

올해는 재외공관들이 더욱 팔을 걷어붙일 전망이다. 외교부와 농림부는 지난 12월 차관급 협의를 통해 공관의 기본활동계획을 마련하여 전 재외공관에 시달하였다. 관저 요리사들을 공모하고 이들에게 한식전문교육을 실시한 후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공관의 한식문화 보급 활동을 지원하고 주요 공관에는 식자재를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재외공관들의 분투에 화답하듯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4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며 25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대국들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가능성과 자신감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농식품 수출 25억 달러'는 의미가 크다.

우리 국민은 경험을 지니고 있다. 지난 1964년 1억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을 1977년 100억 달러로 끌어올렸다. 2006년에는 3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그친다. 하지만 여러 사람의 꿈은 비전이 되고, 실행으로 옮겨진 비전은 현실이 된다.

우리 농업의 수출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전 재외공관이 발로 뛰는 세일즈외교를 전개하고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확산·결집한다면 '농식품 수출 강국'의 꿈을 이루게 될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

## 캘리포니아 시금치 이야기<sup>12)</sup>

하영호 국제농업국장

미국의 캘리포니아 살리나스 밸리(Salinas Valley)는 소설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로 유명한 존스타인벡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진 곳입니다. 존스타인벡 센터, 도서관, 그가 다녔던 학교 등을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요.

그런데 살리나스 밸리는 존스타인벡의 관광지가 아닌 다른 점에서도 관심이 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상추, 딸기, 수박, 브로콜리, 당근, 배추, 시금치 등 신선 채소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어서 이곳 사람들은 살리나스 밸리를 "샐러드 그릇(Salad Bowl)"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시금치 생산량의 74%이상이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고 그중에서 살리나스 밸리에서 3/4이 생산되며 상추의 경우는 미국 전역의 80% 이상이 이곳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의 한 파머스 마켓)

12) 이 글은 2008. 1. 9일자 농어촌선교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불명예스러운 일로 뉴스의 초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6년 9월, 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연수할 무렵, 살리나스 밸리에서 생산된 시금치에 감염된 유해한 대장균(E Coli)으로 26개주에 200명 이상이 식중독을 일으키고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전역이 9월 한 달을 떠들썩하게 지냈습니다. 특히 1995년 이후 상추나 시금치와 관련된 대장균 감염사고 20건중 9건이 살리나스 밸리에서 나온 것이어서 살리나스 밸리의 생산자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였습니다.

9월 5일 위스콘신주에서 먼저 환자가 발생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9월 13일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조사에 착수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포장된 신선시금치(bagged fresh spinach)를 먹지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한편, 살리나스 밸리의 유기농산물 생산업체인 내추럴선택푸드사(Natural Selection Foods LLC)는 9월 15일, 시금치를 리콜한다고 발표하였지요. 식품당국은 살리나스를 중심으로 몬테레이, 산베니토, 산타클라라 등 3개 카운티에 있는 9개 농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한 달여에 걸친 조사결과, 살리나스 시금치 농장으로부터 0.5~1마일 떨어진 한 소(cattle)목장을 오염원으로 지목하였지만, 어떻게 해서 그 목장에서 시금치 밭으로 대장균이 전염되었는지 밝혀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품사고가 나면 다양한 비판들이 있게 마련인데 신문에 나는 이야기들은 대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신선도유지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긴 하지만 왜 사고가 나서야 법석을 떠느냐, 왜 미리 알 수 없느냐, 농무부(USDA), 식품의약청(FDA), 질병관리본부(CDC) 등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기가 어렵지 않느냐, 등의 비판이지요.

한편, 생산자들은 지은 죄가 있어서 입은 닫고 있으나 소비위축으로 입은 손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추정하기로는 7천4백만 달러(740억원)의 손해가 예상된다는데 2005년 캘리포니아 시금치 생산액 2억5천8백만달러(2,580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당장의 손해도 문제이지만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 문제를 더 크게 고민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나마 인상적인 것은 조사가 진행되면서 식품의약청이 문제가

된 3개 카운티 외에서 생산된 시금치는 안전하다고 발표하는 등 생산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살리나스 밸리의 시금치와 관련된 식품사고를 보면서, 세계농업강국이라는 미국도 이외로 식품관리시스템에 취약한 점이 있구나, 하고 적잖이 놀랐으며 우리와 유사한 문제와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식품관리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방심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 다보스 포럼이란 ?

통상협력과 서기관 김철

### 1. 다보스 포럼이란?

다보스 포럼은 세계 각국의 영향력 있는 정치지도자, 유명한 기업경영자, 학자, 언론인 등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 가는 각 분야의 리더들이 한 곳에 모여 세계정치, 경제, 외교 등 국제문제, 기술동향, 문화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다.

1981년부터 시작된 다보스 포럼은 연차총회와 지역별 회의, 산업별 회의를 열고 있으며 그 논의 내용의 중요도가 높아 세계무역기구나 G8 등 선진국 정상회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주요 국제회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세계 각국에서 총리, 장관, 대기업의 CEO 등 유력인사 2000여명 참석하여 약 1주일에 걸쳐 토론을 벌이며 세계 정치, 경제의 뉴트랜드와 주요 이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기업과 정부, 각 개인이 급변하는 정치·경제 환경하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전 세계가 다보스포럼을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연초에 개최되어 지구촌에 새롭게 대두될 중요한 변화 및 글로벌경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다보스 포럼은 1970년 스위스의 클라우스 슈밥(현재 제네바대학교 교수)가 유럽의 기업인을 다보스로 초청, 유럽의 경제문제를 논의한 데서 시작하여 지금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포럼을 주최하는 WEF(World Economic Forum)는 1971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으로 법인 회원제로 운영되며 연간 회원비가 비싸기로도

유명하다. 현재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1,200여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및 언론사와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다. 격월간으로 기관지 '월드링크'를 발행하고 있으며 매년 '세계경쟁력 보고서'도 낸다.

다보스포럼의 주요 참석자를 살펴보면 '07년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응웬편중 베트남 총리, 룰라 디 실바 브라질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 등 정치인과 빌 게이츠 회장,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최고경영자, 구글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하워드 스트링거 소니 회장 등 800여명이 넘는 기업인들이 초대됐다. 지난해 UCC 열풍을 불러 일으킨 유튜브 창업자인 채드 헐리도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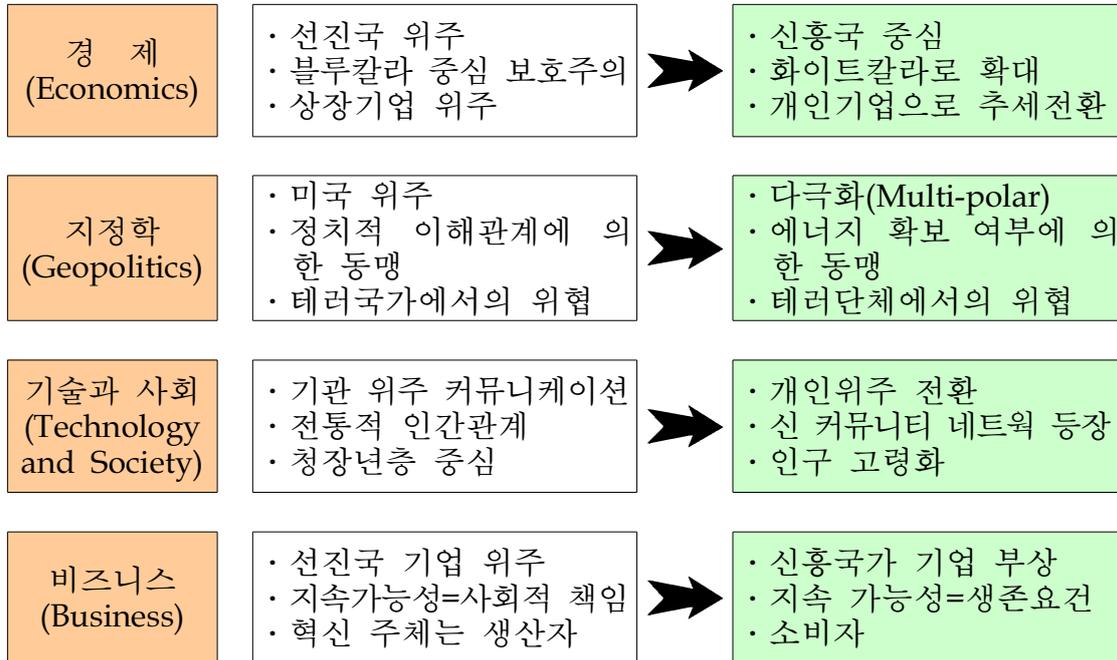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06년도에 반기문 현 UN 사무총장, 진대제 장관, 이명박 서울시장,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였으며, 재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07년도에는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 최태원 SK 회장과 김영환 대성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 2. 다보스포럼 최근 논의동향

### <2007년 다보스포럼>

2007년 다보스포럼은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으며 주제는 '힘의균형 이동(The Shifting Power Equation)'으로 지구촌의 권력이 이동하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제, 지정학, 기술과 사회, 비즈니스 등 4개 분야에서 힘의 이동 트렌드를 파악하고, 228개의 소세션에서 기후변화, 에너지, 네트워크 사회 등 전 세계 제반 이슈에 대해 집중 토론이 있었으며,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가의 부상에 주목하였다.

<4개 주제별 힘의 균형 이동 트렌드>



<4개 주제별 주요 발표내용>

경 제	“중국·인도 등 신흥국 부상에 따른 자본 축적으로 전 세계적 이자율 하락. 반면, 신흥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유발” (루비니, 뉴욕대 교수)
지정학	“선진국 석유자원 지배권이 감소하고 중국·인도 등으로 이동. 에너지안보가 국제정치 관심사가 되며 세계는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새 리더쉽 요구” (아텔리, Economic Trend 회장)
기술과 사회	“커뮤니케이션 기술발전으로 CNN 등 거대 미디어사 영향력은 축소되고 개인 커뮤니티 영향력 증대. 한편, 미디어 전문성이 아마추어 의견으로 대체 등 부작용 존재” (퀘스트, CNN 앵커)
비즈니스	“소비자 파워가 증대하고 있고, 신흥시장의 신소비자들의 비즈니스의 모든 면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음” (커리, BBC 전문기자)

2007년 다보스포럼에서 소개된 주요 신조어로는 자선사업기업가(Philanthropreneurs), 석유정치(Petropolitics), 정보전염병(Infodemics), 독신경제(Single Economy), 종족주의(Tribalism) 등이 있으며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자선사업기업가(Philanthropreneurs) : 자선사업(Philanthropy)과 기업가(Entrepreneur) 합성어로 기부 기업가를 지칭하며 빌게이츠(MS), 고든 무어(인텔) 등이 대표적
- 석유정치(Petropolitics) : 석유(Petroleum)와 정치(Politics) 합성어로 석유자원을 가진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국가들의 정치입지 강화 묘사
- 정보전염병(Infodemics) :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을 합친 말로서 정보확산으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지칭
- 독신경제(Single Economy) : 세계적으로 20대~30대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성을 지닌 독신자 소비층 증대, 특히 독신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증대
- 종족주의(Tribalism) : 지역 정체성, 동질성 그룹의 영향력 강화를 지칭

2007년 다보스포럼을 통해 본 10가지 경영에 참고할 키워드로 다음을 열거할 수 있다.

첫 번째 신흥시장 확대 지속에 따른 글로벌 전략의 점검이 필요하다.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의 경제력이 급부상함에 따라 세계 정치 시스템도 변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제는 중국과 인도를 넘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및 아프리카로 힘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영상 고려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한중일이 신흥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동북아가 신흥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업경영 환경에도 동북아 경제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과거 역사인식 차이로 인한 3국간 긴장관계 지속과 에너지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핵문제는 한중일 3국의 공동대처로 해결하고 이를 동북아의 지역통합을 위한 촉매로 활용하자는 결론도 도출되었다.

세 번째 M&A의 중심세력이 신흥 개도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과 인도의 그룹들이 세계 M&A 시장에서 중심세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네 번째 기업과 고급인력 유치에 위한 도시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거 1950년 25억 세계 인구중 30%만이 도시에 거주했는데 현재는 65억중 50% 이상이 도시에 머물고 있다. 향후 2050년에는 90억 인구중 2/3가 도시인구가 될 것으로 블룸 하버드대 교수는 전망하고 있다. 국가 경제력의 구심점이 도시로 집중되고 있으며 고용증진을 위해서는 도시가 글로벌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며 세계적 수준대학과 기업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도시가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네트워크 중심이 기관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Web 2.0 시대로 발전함에 따라 지식이 전문가에서 아마추어 집단으로 이전하는 등 네트워크에서 힘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힘의 이동은 구글 애드센스나 위치 정보파악 서비스 등 신사업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여섯 번째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미래의 생존 조건이 되고 있다. 2006년 다보스포럼 참석자 설문조사에서는 9%만이 기후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적하였으나, 2007년에는 20%가 선택하였다. 지구온난화,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최대 화두가 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친환경 지속가능 경영을 생존을 위한 경영전략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향후 기후 변화로 인한 파장과 원유 등 화석연료 그리고 물 부족에 따른 물 접근 제한으로 조만간 전쟁과 광범위한 폭동을 초래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일곱 번째 에너지 확보가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가르는 척도가 될 것이다. 2030년 전 세계의 에너지 소비는 50% 증가가 예상되는데 반하여 석유 등 화석연료의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다. 최근의 유가상승은 국제적인 투기자본에 기인한 바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하여 원유 매장량이 감소됨에 따른 공급이 더 이상 확대되질 못하는데 원인이 크며 따라서 유가상승은 구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은 대체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도 대규모 공중 교통망 구축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사용량 증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에너지 부족시대가 도래하면 당연히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 및 국가가 경쟁력을 보유할 것이다.

여덟 번째 기업경영의 중심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고 있다. 인터넷 확산으로 소비자 주권이 강화되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힘의 이동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추세이며 증가하는 고객 파워는 CEO가 의사결정시 고려해야 할 1순위가 되고 있다. 아울러 네트워크를 통한 소비자 정보의 실시간 유통이 가능해져 기업의 보다 빠른 의사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아홉 번째 CEO 리더십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최근 선진국에서 주요 기업 CEO 들의 독단적 경영으로 인한 퇴진과 함께 CEO의 책임과 경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다보스포럼에 참석자들은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신경제 시대에 제왕적 CEO의 시대가 가고 전제군주적 주주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하고 있다. 네트워크 경제에서 CEO는 더 이상 전지전능 하지 않으며 따라서 CEO의 역할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비전을 제시하는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 환경, 지정학, 사회, 기술 등 5개 분야에 걸쳐 핵심 글로벌 리스크를 제기하였으며 포럼에서는 글로벌 리스크에 대처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국가와 기업들로 구성된 '자발적 협력체(Coalition of the Willing)' 결성하고 기업 '최고 위험관리 책임자(CRO; Chief Risk Officer)'와 같은 국가위험을 관리할 '국가 위험관리'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 <2008년 다보스포럼>

2008년 다보스 포럼은 1.23-27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주제는 'The Power of Collaborative Innovation(협력혁신의 힘)'이다. 2007년 다보스포럼에서는 '힘의 균형 이동'을 주제로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08년에도 힘의 이동은 유효할 것이다. 그러나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통된 비전이나 어젠다는 부재하며 끊임없는 도전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혁신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으며 기업을 둘러싼 다수의 이해관계자(직원, 고객, 경쟁사, 협력업체, 시민단체 등)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이들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때 지속 가능한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협력과 혁신이라는 주제는 포럼의 참석자에게 많은 도전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2008년 다보스포럼은 '협력혁신의 힘'이라는 큰 주제 하에 5개 분야별로 소주제를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첫 번째 비즈니스분야에서는 “협력과 경쟁(Competing While Collaboration)”이란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세계화는 기업에게 내외적으로 보다 많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속도는 기업의 협력과 상호 의사교류 능력에 좌우될 것이다.

경제 및 재정(Economics and Finance) 분야에서는 “경제적인 불확실성의 대처(Addressing Economics Insecurity)”가 논의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이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가 및 전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동조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대처방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지정학(Geopolitics) 분야에서는 “다분 이해의 정렬(Aligning Interests across Divides)”이란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에너지와 자연자원 부존국가는 세계에 보다 많은 정치적인 힘을 요구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발전이 될 수록 내부적인 혁신에 대한 압력은 증가할 것이다. G8 국가중 상당수가 작년에 총선을 치렀거나 금년에 치를 예정이다. 또한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이 새로운 세계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여러 이해를 과연 어떻게 정렬할 수 있을 것인가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는 “새로운 프론티어의 개척(Exploring Nature’ New Frontiers)”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나노기술, 유전공학, 컴퓨터 공학, 뇌공학 등의 발전 및 융합은 우리에게 새로운 프론티어를 보여주고 있다.

가치와 사회(Values and Society) 분야에서는 “미래 이동의 이해(Understanding Future Shifts)”이란 주제가 다루어진다. 서방국가는 과학기술, 혁신, 생산성 및 교육의 우월성으로 자국의 경쟁력이 지속될 것이라 확신하지만 역사는 항상 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앞으로 중국, 아랍, 힌두 문명으로의 힘의 이동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 3. 시사점

다보스포럼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포럼으로 발전하게 된 것에는 몇 가지 성공요인이 있다. 첫째 글로벌 의제를 선점하고 이슈화하는데 다보스포럼이 탁월하다. 둘째 초청자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다보스포럼은

지구촌 엘리트만이 참석가능하며 이에 따라 참석자체가 영광인 모임이다. 다보스포럼 초청자를 선정할 때 철저하게 현직 우선 원칙이 고수되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초청자 선정 및 회원가입이 이루어진다. 또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지도자를 선정하여 일찍부터 회원으로 관리한다. 셋째 스위스 정부와 기업인의 지원이 다보스포럼을 세계적인 행사로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정부는 병력 5000여 명을 투입해 참석자들을 경호하며, 주최측을 대신해 초청장을 보내기도 한다. 네슬레, UBS, 스위스리, 취리히 파이낸셜 서비스 등 거의 모든 스위스 기업들이 포럼에 참여하여 자국의 기업을 알리는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넷째 회원만을 위한 닫힌 포럼이 오히려 다보스포럼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비록 오만한 포럼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지만 다보스포럼은 정보와 지식을 회원들(참석자)만 얻도록 하는 닫힌 포럼을 지향한다.

최근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나 부처에서 다보스포럼과 같은 세계적인 포럼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이슈의 선점 및 엄선된 참석자 선정 등을 많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보스포럼이 매년 초에 전해주는 메시지는 참석자들의 면면만큼이나 중요한 화두로 다가오며 세계 정치, 경제에 새로운 흐름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

□ 미국 농업부 경제연구소(ERS), 농촌관광 연구보고서 발간

1. 미 농업부 경제연구소(ERS)에서 미국의 농촌관광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보고서 명 : Farm-Based Recreation - A Statistical Profile
  - 연구자 : Dennis M. Brown, Richard J. Reeder
  - 보고서 발간일 : 2007. 12. 31.

2. 보고서의 주요 내용

- 2004 농업자원 관리 조사(ARMS ; Agriculture Resource Management Survey)와 2000 여가생활과 환경 전국 조사(National Survey on Recreation and the Environment) 자료를 기초로 미국 농가의 농촌관광(agritourism) 실태를 분석
- 농촌관광으로 소득이 있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2.5%인 52천호, 농촌관광 참여 농가의 농촌관광 평균 소득은 소농가(250에이크 미만) 3,000불, 중농가(250-999에이크) 2,500불, 대농가(1,000에이크 이상) 4,000불 정도임

\* 상세 내용은 ERS 홈페이지 참조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err53>)